

국내 현존 宋·元本の 조사와 書誌的 분석*

A Inquiry and Bibliographical Analysis of Old Books from
Sung and Yuan Dynasties Existed in Korea

옥 영 정 (Ok, Young-Jung)**

◁ 목 차 ▷

- | | |
|-----------------------|--------|
| 1. 서 언 | 3.1 宋本 |
| 2. 송·원본의 감별의 기준과 특징 | 3.2 元本 |
| 2.1 송·원본 감별의 기준 | 4. 결 언 |
| 2.2 송·원본의 특징 | <참고문헌> |
| 3. 국내 소장 송·원본의 조사와 정리 | |

< 초 록 >

이 연구는 국내 소장 宋·元本에 대한 연구로 먼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송·원본의 감별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근거로 국내에 소장된 송·원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별 서적에 대한 올바른 감별과 가치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송·원본 감별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版式, 裝幀, 紙質, 墨, 字體, 刀法, 避諱, 刻工, 刊記 등을 근거로 송·원본에 대한 기존 학설을 정리하고 이를 종합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내에 소장된 송·원본을 조사하여 해당 간본에 대한 개별해제와 간본의 계통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송간본은 3종, 원간본 13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 소장된 송·원본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개별 서적에 대해서는 해당 서적에 대한 개괄, 역대 간행, 국내 소장본의 판본감별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하나의 서적을 정확하게 감별하기 위해 형태적인 사항과 간본의 특징을 살펴보고 간본 상호간의 비교검토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서지학이나 조선시대 한-중 서적교류사를 뛰어넘어 정치, 경제, 사회, 국어학, 의학, 불교학 등 각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1차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要語: 송본, 원본, 송·원본, 인쇄사, 채수본, 원각본, 송각본, 판본학, 판본감별, 귀중본, 선본, 서적문화, 동아시아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327-2009-1-H00012).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부교수(gabinja@hanmail.net)

접수일: 2012년 9월 5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ditions published in the Song and Yuan dynasty and organizes overall the distinguisher standard for them that many scholars hav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at, it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editions published in the Song and Yuan dynasty within the country, and to determine the right distinguisher and value of each book. The 1st chapter organized and synthesized the existing theories on the basis of the book design format, book binding, fiber quality, ink, style of calligraphy, cutting method, naming taboo, carving artisan, and colophon in order to present the distinguisher standard for the editions published in the Song and Yuan dynasty. The 2nd chapter determined annotated bibliography and system of its printed edition by investigating the editions published in the Song and Yuan dynasty.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ere 3 kinds in the Song printed edition and 13 kinds in the Yuan dynasty printed e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publication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inted editions, and comparatively reconsidered the reprinted ones by investigating the documents and existing editions as well as analyzed the detail items to distinguish the book correctly. This study will furnish the primary information to politics, economy, society, Korean linguistics, medical science, and Buddhism above a bibliography or Korea-China book exchange history in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Song, Yuan, published in the Song and Yuan dynasty,
Korea-China book exchange

1. 서 언

송본·원본에 관한 서지학적인 연구는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자국에 소장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연구성과가 누적되어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송·원본이 드물게나마 현전하지만 이들 서적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알려진 송·원본의 판본 감정에 있어서도 간행시기비정의 오류, 부정확한 서지기술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는 국내 연구에서 송·원본 감별에 대한 기초적 토대가 부실한 점을 1차적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원본 감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외에 소장된 개별 송·원본을 역대 간본과 상호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소장된 송·원본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과 서지적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소장기관별 서지적 분석이나 해당 서적의 계통 및 간행시기에 관한 고증도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인 서지적 분석으로 국내에 소장된 송·원본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과 개별 서적에 대한 가치부여가 되지 않고서는 2차적인 각 주제분야별 서책연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형태서지학과 원문서지학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중 서적교류 연구에 기초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에 소장된 송·원본의 현황과 이들 서적에 대한 서지적 분석, 판본비정, 필요한 경우 해당 서적의 계통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송·원본에 대한 형태서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내소장 송·원본에 관해서는 1) 형태서지적인 특징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의 제론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송·원본 판본 감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다음으로 문헌조사를 통해서 기존의 고서목록 등에서 확인되는 국내소장 송·원본을 조사하고자 한다. 3)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서지적 특성을 분석한 후, 국외에 소장된 송·원본 자료와 비교 고찰할 것이다. 이 조사를

통해 새로운 송·원본에 대한 발굴과 함께 국내 소장 송·원본의 목록상의 오류를 바로잡고 올바른 서지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자료를 검색하고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한중일 간행 각종 서목과 해제집, 도록 등을 기반으로 정리할 것이다.

2. 송·원본의 감별의 기준과 특징

2.1 송·원본 감별의 기준

송·원본을 감별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바 있다. 이에 관해 屈萬里·昌彼得,¹⁾ 李致忠,²⁾ 程千帆·徐有富,³⁾ 曹之⁴⁾ 등의 학설과 이를 정리한 謝鶯興⁵⁾의 글이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먼저 굴만리·창피득은 형태에 있어서는 板式, 字體, 行款, 刻工, 紙張墨色, 避諱를 내용에 있어서는 地名·沿革, 官制, 撰序人時代, 後人이 舊板을 增刊하면서 남긴 評語, 書板의 주인이 바뀌면서 변경된 題記를 근거로 해야 하며, 이치충은 내용과 형태로 특별히 나누지 않고 原書序跋, 序牌木記, 後人題跋識語, 原書刻工, 書中諱字, 地理沿革, 機構職官變遷, 銜名尊稱諡號, 書名冠詞稱謂, 卷端上下題, 卷數變遷, 藏書印記, 原書內容을 통해 감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천범·서유부는 牌記, 刻工, 諱字, 板式, 紙墨, 字體, 原書序跋, 內容, 題識와 藏印, 著錄情況, 別本比勘, 종합적 고찰과 함께 書名, 卷數, 目錄, 人名, 地名, 年代, 官名, 體例, 史實, 科研價值 등의 보완자료를 통해 서적을 감별해야 함을 밝혔다. 曹之의 경우 내용에 있어서는 卷數, 編例, 學術源流, 名物制度, 內容時限, 篇目排列, 內容文字로,

1) 屈萬里, 昌彼得, 『圖書版本學要略』(第5版)(臺灣: 華岡出版有限公司, 1978. 4).

2) 李致忠, 『古書版本學概論』(北京: 文獻出版社, 1990. 8).

3) 程千帆, 徐有富, 『校讎廣義-版本編』(第2版)(濟南: 齊魯書社出版, 1998. 4).

4) 曹之, 『中國古籍版本學』(第2版)(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07. 8).

5) 謝鶯興, “古籍版本考辨--以牌記著錄例,” 『東海中文學報』, 第14期(2002. 7), 97-128.

형식에 있어서는 書名頁, 序跋, 卷端, 避諱, 牌記, 行款, 字體, 刻工姓名, 紙張, 藏書印, 室名 등 12가지 요소를 가지고 서적을 감별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嚴佐之⁶⁾는 크게 각본의 형식 특징, 문자기록, 기타자료로 구분하여, 형식 특징으로는 字體, 版式, 印紙, 墨色·刀法, 裝幀을, 문자기록으로는 序跋, 牌記, 書名頁[서명이 기록된 쪽/ 標題面], 書衣, 書口로, 기타자료로는 題跋, 藏書印章, 書目, 書影·圖錄, 기타문헌기록을 통해 간본을 정확히 고증할 것을 제시했다. 書口의 경우에는 각공성명, 피휘자, 특수자, 書名冠詞, 卷端題名으로 세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감별하는 방법에 있어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서적의 형태와 내용, 그 외의 문헌자료를 토대로 서적을 감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2 송·원본의 특징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감별의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版式(匡郭, 行款, 版心), 裝幀, 紙質, 墨, 字體, 刀法, 避諱, 刻工, 刊記 등을 근거로 송원간본에 관한 선학들의 학설을 정리하고 이를 종합하였다.⁷⁾ 각 간본의 특징을 종합하기에 앞서 먼저 송·원본에 대한 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먼저 판식에 관한 특징으로 광곽의 경우 대부분 左右雙邊이라는 학설(長澤規矩也, 李清志, 羅樹寶)과

6) 嚴佐之, 『古籍版本學概論』(國學基礎叢書)(第2版)(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8. 10).

7) 참고한 서적은 다음과 같다. 張澤規矩也, 『書誌學論考』(張澤規矩也著作集 第1卷)(東京: 汲古書院, 1982. 8), 109-128.; 沈暉俊 譯, 『中國古書版本鑑定研究』(中央大學校出版部, 1991), 180-196쪽에 수록된 尾崎康의 견해(<宋版鑑定法>, 古籍鑑定與維護研習會專集, 1985) 참조.; 李清志, 『古書版本鑑定研究』(台北: 文史哲, 1986).; 羅樹寶 지음, 조현주 옮김, 『중국 책의 역사』(다른생각, 2008).; 李致忠, 『古書版本學概論』(北京圖書館出版社, 1990)(2003. 12 重印), 90-97.; 『歷代刻書考述』, 1990.; 『古書版本鑑定』, 1998, 111-114.; 程千帆, 徐有富, 위의 책.; 毛春翔, 『(插圖增訂本)古書版本常談』(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7)(2003. 4 重印), 32-52.; 張麗娟, 程有慶, 『宋本』(中國版本文化叢書)(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12)(2003. 8 重印).; 陳正宏, 梁穎 編, 『古籍印本鑒定概說』(上海辭書出版社, 2005).; 林夕, “宋刻本の賞鑑與收藏-古書版本知識,” 『藏書家』第11輯(2006. 11), 148-160.; 曹之, 위의 책.; 嚴佐之, 위의 책, 134-148.; 陳紅彥, 『元本』(中國版本文化叢書)(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12)(2003. 8 重印), 29-32.

전기에는 四周單邊이었다가 후기에 左右雙邊이 많아졌고 四周雙邊의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학설(李致忠, 毛春翔, 張麗娟·程有慶)과 북송초기에는 사주단변, 북송후기에는 좌우쌍변, 남송말에 이르면 사주쌍변으로 변했다는 학설(嚴佐之)이 있다. 이 중 엄좌지의 견해가 가장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학자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송간본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항자수에 있어서는 간행주체나 간행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송·원본의 구분에 근거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 따라서 毛春翔의 경우에는 중요한 특징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판심은 또 다시 版口와 판심상에 기록되는 내용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먼저 판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白口이며 남송 후기로 갈수록 흑구가 보이기 시작하며, 판심에 기록되는 내용으로 上版口에는 1판에 들어가는 내용의 글자수를 판각하였고, 下版口에는 刻工名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판심에 대한 견해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상이 판식을 통해 살펴본 송간본의 특징이다.

다음으로 장황의 경우에는 대부분 蝴蝶裝이며 남송 중후기에 포배장이 출현했다고 본다. 그러나 현전본의 대부분은 선장으로 改裝한 것이 많고 원래 장정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 드문 상황이다. 지질의 경우에는 송·원본의 중요한 특징으로 손꼽히는데 간단히 말하면 白色, 堅韌 즉 백색을 띄고 견고하고 질긴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행지역에 따라 사용된 종이는 현저히 달라졌는데 이는 浙本이나 蜀本의 경우 皮紙가, 建本의 경우에는 일명 麻沙紙라고 불리던 竹紙가 사용된 것을 통해 확인된다. 종이는 색깔, 두께, 발문, 치밀도에 따라 간행시기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중 발문을 살펴보면 송대의 竹紙가 손가락 두 마디의 너비나 그 이상이었던 반면 명대의 죽지는 한 마디에 그쳤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밖에 송간본에 사용된 종이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폐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인출한 것을 들고 있다.

사용된 먹의 경우에는 광택이 나고 묵향이 나지만 그 색에 있어서는 매우 검은 먹이라고 하는 경우와 농도가 연한 먹이라고 하는 경우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연구자마다 실사한 송본이 달랐던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字體의 경우에는 판각한 시대의 모습과 함께 지역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송본 감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송간본은 주로 歐陽詢·顏真卿·柳公權의 서체를 모방한 것이 많았는데, 이 중 浙本은 歐陽詢體가, 蜀本은 顏真卿體가, 建本은 柳公權體가 주로 사용되었다.

도법의 경우에는 字體와 같이 지역적인 특징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 浙本은 방정하고 정제되어 있으며 가로세로 획의 굵기 차이가 적고, 蜀本은 가로세로획의 굵기 차이는 절본과 건본의 중간 정도이며, 建本은 모나고 예리한 도법으로 세로획이 가로획보다 굵고 가로획의 경우에는 오른쪽이 비스듬히 위로 올라간 모습을 띄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피휘의 경우에는 송간본과 원간본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감별 요소가 되는데 송대에 있어 피휘란 송대 제왕들이나 玄郎, 軒轅 또는 왕의 외척의 이름을 피휘한 것을 말한다. 피휘의 사용은 판각본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진 반면 사각본이나 방각본에서는 규율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改字, 改音, 空格, 缺筆(缺畫) 등 피휘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⁸⁾ 주로 缺筆이 사용되었고 이 외에도 당시 재위왕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해당 글자를 판각하지 않고 ‘今上御名’을 小字로 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명·청대에도 송본을 번각한 간본의 경우에는 피휘의 방식을 그대로 판각한 경우도 발견되므로 세심한 감별이 요구된다.⁹⁾

각공의 경우에는 原刊本과 修補本을 구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각공명에 대한 연구로는 長澤規矩也의 「宋元刊本刻工表初稿」,¹⁰⁾ 魏隱儒의 「古

8) 陳先行, “宋元刻本的鑒定與變位,” 『古籍印本鑒定概說』, 陳正宏·梁穎 編, (上海辭書出版社, 2005), 17.

9) 피휘 간명표는 毛春翔, 위의 책, 127-144쪽과 嚴佐之, 위의 책, 199-207쪽을, 피휘에 관한 전문서로는 陳垣, 『史諱舉例』(上海書店出版社, 1997. 6); 王新華, 『避諱研究』(濟南: 齊魯書社, 2007. 1)을, 용례사전으로는 王彥坤, 『歷代避諱字匯典』(中州古籍出版社, 1997. 5)를 참조할 수 있다.

10) 長澤規矩也가 작성한 각공표에는 日藏漢籍 130종의 송본, 73종의 원본 중에 있는 송대각공 성명 1,500여명과 원대 각공 750여명을 기록하여 송원각본을 감별하는 데 있어 훌륭한 참고서이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魏隱儒의 목록은 “송~청대에 일부 각본에 보이는 각공과 寫畫人的 姓名簡表”로 명청대의 각공성명을 보충한 것이 상당히 많다(嚴佐之, 위의 책, 141).

籍版本鑒定叢談」부록, 王肇文의 「古籍宋元刊工姓名索引」¹¹⁾을 참조할 수 있다.

끝으로 牌記, 題記, 條記 등의 刊記는 송간본의 간행시기와 신·구판을 구분하는 근거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피휘와 같이 번각본일 경우에는 해당 간기를 그대로 모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간기는 관판본보다 주로 사가본이나 방각본에서 보이며, 관판본의 경우에는 권말에 교감자의 관함이 관각된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원간본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여 종합하고자 한다. 이치충의 견해로 원간본은 간단히 말해 ‘黑口, 趙字, 無諱, 多簡’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했다. 多簡이란 간체자가 많이 사용된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國’을 ‘囯’으로, ‘學’을 ‘孝’으로 사용한 경우이다.¹²⁾ 이처럼 원간본에서는 간체자와 속자의 사용이 현저히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현전본을 보면 원판번각본을 제외하더라도 명초까지도 적지 않은 속자와 간체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먼저 판식에 있어서 광곽과 향곽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엄좌지의 경우에는 ‘남송말에 비해 변란의 굵기가 더 굵어진 사주쌍변과 남송에 비해 좁아진 행간’이라고 언급한 정도이다. 판심의 경우에는 대체로 송간본에서 백구가 많았던 것에 비해 흑구본이 다수를 차지하고, 판심 상판구와 하판구에 자수나 각공이 새겨진 기록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정의 경우에는 남송 중기 이후에 포배장이 출현하면서 남송대에 주로 사용되던 호접장에서 포배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포배장의 사용은 명 가정, 융경연간까지도 유행하다가 만력연간에 들어서야 선장본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았다. 지질에 있어서는 두 가지 견해로 엇갈리는데 하나는 초기에는 黃麻紙가 주로 사용되었고 후기에 竹紙가 사용되었다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시기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黃麻紙가 많이 사용되었고 白麻紙와 竹紙의 순으로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11) 王肇文, 「古籍宋元刊工姓名索引」(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12).

12) 嚴佐之, 위의 책, 143쪽 참조.

원간본에 사용된 墨의 경우에는 송대에 비해 혼탁한 먹이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字體의 경우에는 원간본의 특징이 비교적 잘 반영된 부분으로 초기의 경우에는 남송본과 유사하지만 후기로 가면서 조맹부체를 모방한 서체가 유행했다. 피휘의 경우에는 송본과 달리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원간본에 대한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송간본에 비해 版心の 기록, 墨, 刀法, 刻工 등에 있어서 연구가 매우 부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국내 소장 송·원본의 조사와 정리

이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송·원본의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들을 대상으로 국내 소장 송·원본을 조사하였다. 조사범위는 문화재청, 대학도서관, 각급 박물관 등의 기관에서 조사하여 간행한 古書目錄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비롯한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조사하고 실물 확인한 자료로 한정하였다.

송·원본의 경우 송판의 판목을 바탕으로 원, 명대에 이르러 수보한 후에 인출하는 宋刻元明遞修本과 같은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수본 역시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조사된 간본에 대해서는 해당 서적에 대한 개괄과 역대 송·원본의 종류를 조사한 후 국내 소장본의 서지사항과 형태분석을 통해 해당 간본의 계통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송간본 3종, 원간본 13종(중복된 서적 「대학연의」 2종, 「광운」 3종, 「자치통감」 2종, 「통지」 3종, 대장경(적사장) 3종 등을 포함하면 25종이다)으로 확인되었다.

3.1 宋本

3.1.1 「古史」

이 책은 北宋의 蘇轍(1039-1112)이 지은 紀傳體의 역사서로 三皇에서 秦始皇

에 이르는 역사를 司馬遷의 『史記』의 체제를 따라 7本紀, 16世家, 37列傳으로 서술한 것이다. 역대 간본은 宋·元·明刊本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체수본의 형태로 되어 있어 간행시기와 간행처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러나 항자수에 따라 宋版은 11행22자, 元版은 14행24-26자, 명 만력39년(1611)의 豫章刊本과 南京國子監간본은 10행20자로 간단히 분류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본(奎中 5540)은 60卷16冊으로 형태사항은 “上下單邊 半郭 24.0 × 15.9 cm, 有界, 11行22字, 上下下向黑魚尾 ; 30.6 × 20.4 cm”이며 黑口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간혹 판심 상판구에 글자수가 판각되어 있거나 하판구에 각수명이 판각된 것을 볼 수 있다. 장정은 남송중기 이후에 출현하여 원명초에 많이 사용했던 포배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4침안으로 선장으로 후대에 개장하였다. 항자수가 11행22자로 송판계열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 宋刻元明遞修本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국가도서관 소장본은 반곽이 ‘24.4 × 16.8 cm’로 규장각본과 판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卷2 五帝本紀 第2의 첫 장 제7행 제6字인 ‘四’의 제2획이 규장각본과 동일하게 떨어져 나간 현상이 보인다. 이외에 제3행 제18자인 ‘玄’이 피휘법으로 마지막획을 결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玄은 북송을 건립한 趙氏의 시조인 玄郎의 이름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규장각본은 일단 송간본의 판형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서체와 지질로 이루어진 補板이 상당량 혼재되어 있으므로 규장각 소장본은 송각본을 이용하여 宋元明 삼대에 걸쳐 수보된 宋元明遞修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1.2 「國朝諸臣奏議」

이 책은 北宋代 趙汝愚(1140-1196)가 당시의 관료 243명이 올린 奏議 1,631편을 彙編한 서적이다. 이 책은 「宋名臣奏議」라고도 칭하는데 「文淵閣四庫全書」에 수록된 것이 이 서명으로 된 간본이다.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는 「進書筭자와 自序 및 史季溫의 서문에서 모두 「名臣奏議」라고 칭했지만, 이 간본의 경우에

제목이 「諸臣奏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중간에 丁謂나 秦檜와 같은 사람들이 명칭을 바꾼 것이 아닐까?”라고 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 원래의 서명이 「名臣奏議」였고 후에 「諸臣奏議」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존하는 송·원본은 서명이 「국조제신주의」로 되어 있고, 명대에 錫山 華氏가 會通館에서 銅活字로 인출한 간본의 경우에만 「宋諸臣奏議」로 되어 있다. 당대 왕조를 높이기 위해서 서명 앞에 관기한 褒詞가 송원시대에는 國朝로 쓰이다가 명대 이후에는 宋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¹³⁾

사고전서본을 대상으로 본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目次, 原序, 進書筭子, 自序, 본문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原序는 史季溫이 淳祐10年(1250)에 작성한 것이며 進書筭子は 淳熙13年(1186)에 조여우가 작성한 것이다. 自序 역시 조여우가 작성한 것이나 언제 작성된 것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본서는 원래 약 1,000여권 정도의 방대한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열람에 불편했기 때문에 治道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차례의 산삭과 교정을 거쳐 현재의 체제로 완성되었다. 현행본은 모두 12개의 門과 각 門에 해당하는 112개의 子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간행은 宋代에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원대, 명대에는 송본을 수보하는 방식으로 간행이 이루어졌다. 먼저 初刊本은 일명 蜀本이라고도 불리며 <進書筭子>가 淳熙13年(1186)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 무렵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史季溫이 작성한 序文에서 “초간본인 蜀本은 이미 병화에 소실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이미 남송 淳祐연간에 일실되었던 상황을 확인할 수

13) 이처럼 왕조명 앞에 사용된 褒詞에 따라 판본을 감별하는 방법을 嚴佐之는 書名冠詞라고 칭하면서 이에 관해 “당대 왕조를 존중하기 위한 표시로 書名에 포함된 왕조명 앞에 종종 ‘皇, 聖, 大’ 등의 褒詞가 쓰였다. 예를 들면 ‘聖宋, 皇元, 大明, 黃清, 國朝, 昭代’ 등이 있다. 이러한 서명관사는 비교적 강한 시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판본의 시대를 감별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宋人의 書名에만 ‘聖宋’이 붙고, 元人의 서명에는 ‘皇元’이, 명인의 서명에 ‘大明’이, 청인의 서명에 ‘皇清’이 붙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예로 元 蘇天爵이 唐朝人의 문집을 편집하고서 서명을 「國朝文類」라고 했는데 원각본에서는 이 서명이 사용되었고, 명칭대의 각본에서는 ‘國朝’라 칭하지 않고 「元文類」라고 개명했다.”라고 설명하였다(嚴佐之, 위의 책, 143쪽 참조).

있다. 초간본 이후에 저자의 손자인 趙必愿(?-1249)¹⁴이 간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었고, 그 후 淳祐10年(1250)에 史季溫이 福州에서 朱貔孫의 도움을 받아 간행하였는데 이 당시 간행된 것이 바로 중간본이다. 이 중간본을 일명 閩本이라고 칭한다.

원, 명대에 이르면 이 민본을 저본으로 한 간본이 유통되었다. 원대에 간행된 간본으로는 민본에서 일부 보수가 가해진 大德4年(1300)의 修補本과 이를 다시 至大1年(1308), 元統2年(1334)에 수보한 간본이 있다. 그러나 宋印本이나 元印本은 매우 드물고 명대에 南雍[남경국가감]으로 版木이 이동되어 宋元版을 두고서 일부를 수보한 후에 인출한 明印本이 대부분이다. 현존 송·원본은 중국의 경우 國家圖書館, 北京大學圖書館, 中國科學院圖書館, 上海圖書館, 吉林省圖書館, 哈爾濱市圖書館에 元修本이, 國家圖書館, 北京市文物局, 上海圖書館, 黑龍江省圖書館, 天一閣文物保管所에 元明遞修이 소장되어 있고, 대만에는 국가도서관에 閩本과 국립고궁박물관에 원명체수본이 소장되어 있다. 일본에는 京大大學人文科學研究所에 大德-元統연간의 補刊本 16冊(권82-88, 97-100, 112-114, 117-122, 145-150)과 靜嘉堂文庫에 宋元遞修本이 소장되어 있다. 미국에는 의회도서관에 宋刻元印本이 소장되어 있다.

상술했듯이 송·원본의 간본이 극히 희소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이 책이 소장되어 있다는 점은 판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규장각본(想白古貴 952.02J569g)은 권41, 42만 남아있는 零本으로 제3번째 門인 天道門 중 災異에 관한 부분이다. 災異는 총9개의 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본서는 그 일부인 제5, 6편에 해당한다.

이 간본의 형태사항은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1.3 × 15.4 cm, 有界, 11行 23字, 上下下向黑魚尾; 29.9 × 19.7 cm”이며, 판심제는 “奏議”이다. 卷末題는 권41과 권42가 차이를 보이는데 권41은 ‘國朝’로 권42는 ‘國朝諸臣奏議’로 되어 있다. 版心 상판구에는 한 張에 판각된 글자수가, 하판구에는 刻手名이 판각되어

14) 자는 立夫이며, 饒州 餘干(江西省) 사람이다. 趙汝愚의 손자로, 黃榦에게 수학하였다. 1214년 진사가 되어 戶部侍郎·權戶部尙書 등을 지냈다(최석기 외, 위의 책, 409쪽).

있다. 장서인은 “서울大學校圖書”만이 날인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규장각본은 전형적인 宋刊本の 형태인 좌우쌍변과 판심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규장각본의 간본은 宋 淳祐10年(1250) 福州路提舉 史季溫刊本으로 알려진 대만 국가도서관 소장본(04828)과 비교한 결과 동일본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규장각본과 형태사항이 동일하며 간혹 黑口나 上魚尾 아래에 墨等이 있고, 판심 하단에 刻工名이 수록¹⁵⁾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묵등의 경우에는 규장각본 제1책 제12-13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규장각본 역시 이와 유사한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조제신주의」 판본의 대부분은 송 원채수본, 원명채수본 등으로 기록하고 있어 간행시기와 간행지에 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규장각본 역시 대만 국가도서관 소장본과 동일한 판형을 지니고는 있지만 여러 형태의 魚尾가 출현하며, 하판구에 각수명이 판각되지 않은 부분도 보인다. 또한 판목이 상단만 잘려나간 부분(제1책 제15-16장)이나 판목의 심한 쪼개짐에도 수보하지 않고 그대로 인출한 부분이 있는 반면 이에 비해 비교적 깨끗한 인출면을 지니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 등 매우 다양한 판형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규장각본은 송판 및 원·명대의 수보판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宋元明遞修本으로 추정된다. 「국조제신주의」는 북송대의 고문헌인 奏議를 수록하고 있어서 북송시대의 정치제도와 사상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1.3 「朱文公校昌黎先生集」

唐 韓愈(768-824)의 시문집이다. 한유의 최초의 문집은 한유가 죽은 뒤에 그의 문인이자 사위인 李漢이 長慶4년(824)에 韓愈의 시와 문장을 엮어 만든 「昌黎先生集」으로,¹⁶⁾ 한유의 賦 4편, 古詩 250편, 聯句 11편, 律詩 173편, 雜著 64편,

15) 國家圖書館特藏組 編, 「國家圖書館善本書志初稿-史部(二)」, (臺北市: 國家圖書館, 1997), 308, no.04828 해제.

16) 당윤희, 오수형, “朝鮮時代に 간행된 韓愈 詩文集 판본 연구,” 『중어중문학』, 第47輯(2010).

書, 啓, 序 86편, 哀辭, 祭文 83편, 碑志 76편, 鱷魚文 3편, 表狀52편 등 총 700여 편을 모아 「창려선생집」 40권을 펴냈고, 이것이 후대의 「한창려문집」의 저본이 되었다.¹⁷⁾ 이 「昌黎先生集」에 대해 朱熹가 제가의 주석을 보태고 오류를 교정하여 「韓文考異」를 편찬했는데, 후에 王伯大에 의해 재편찬된 「別本韓文考異」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국본 「朱文公校昌黎先生集」이다.

「朱文公校昌黎先生集」이라는 서명으로 이루어진 역대 송·원본으로는 3종 정도가 알려져 있다. 송간본은 紹定6年(1233) 臨江軍學 간본이 있고, 원간본은 至元18年(1281) 日新書堂刻本과 간년미상의 원간본이 있다. 세 간본을 행자수에 따라 구분하면 임강군학 송간본은 7행15자, 일신서당 원간본은 13행23자, 간년미상의 원간본은 12행21자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중 국내에는 국립중앙도서관(古貴古5-73-나28)에 송간본이 소장되어 있다. 소장본은 1책의 零本으로 外集 권9, 「順宗實錄 卷第四」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간본의 형태사항은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1.3 × 13.4 cm, 有界, 7行15字, 上下下向黑魚尾; 30.3 × 19.3 cm”로 되어 있다. 판심 상판구에는 대소 글자수가, 하판구에는 각수명이 판각되어 있다. 전형적인 송간본의 형태를 보인다. 여기서 행자수를 보면 7행15자로 상기한 송·원본 중 송간본 또는 그 계열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송간본은 중국 國家圖書館, 北京大學圖書館, 上海圖書館, 南京圖書館, 遼寧省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요령성도서관 소장본¹⁸⁾을 대상으로 국도본과 상호 대조하고자 한다.

요령성본의 판형은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1.7 × 14.0 cm, 有界, 7行15字, 白口, 上下下向黑魚尾”로 이루어져 있고, 판심에 기록된 내용은 上象鼻에 글자수가, 하판구에 각수가 판각되어 있다. 또한 문자에 있어서 ‘玄, 郎, 貞, 征, 禎’

12), 353.

17) 김학주, “조선 간 「朱文公校昌黎先生集」의 略考,”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2(초판2쇄)), 145-146.

18) 본관 소장본은 50권의 낙질이다. 외집, 유문, 집전은 모두 완질이나 본집은 권1-14, 17-40만 소장되어 있다. 장서인으로는 “梅溪精舍, 玉蘭堂, 江左, 鐵研齋, 翠竹齋, 五峰樵客 등”이 날인되어 있다(王榮國 主編, 「遼寧省圖書館藏古籍精品圖錄」(沈陽: 沈陽出版社, 2008. 7)).

등의 피휘가 사용되었다. 이는 趙氏의 시조인 玄郎과 南宋 仁宗(1023-1063)의 이름인 禎을 피휘한 것으로 송간본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상의 내용을 국도본과 비교해보면 광곽의 크기, 판심의 형태와 기록된 내용, 서체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도본은 현재 江西省 樟樹市에 해당하는 臨江지역에서 간행된 浙本 계열의 판본임을 알 수 있다.

3.2 元本

3.2.1 「書集傳音釋」

이 책은 嘉定3년(1210)에 蔡沈이 지은 「書集傳」에 鄒季友가 音釋을 가한 서적으로 모두 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명은 「千頃堂書目」¹⁹⁾에서는 「鄒季友書蔡傳音釋」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은호는 서명을 「尙書蔡傳音釋」으로 보면서 “音讀과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긴요한 해석을 명확히 밝혀놓아 ‘蔡傳功臣’으로 칭해져, 후대에 「書集傳」뒤에 부록되어 판각되기도 하였다.”²⁰⁾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간본에는 ‘音釋’이 부록의 형태가 아닌 본문 주석에 포함되어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역대 간본 중 원간본은 至正5年 虞氏明復齋刻本, 至正11年(1351) 德星書堂刊本과 變桂書堂刻本, 至正14年(1354) 日新書堂刊本, 간년미상의 원간본이 있다. 명간본은 명초간본, 건양서방간본, 정통12년(1447) 내부각본이 있다. 항자수에 따라 이들 간본을 구분하면 원간본인 명복재간본은 13행22字자본(중국 국가도서관에 권4-6 일부 소장), 덕성서당간본은 12행21자본(중국 국가도서관, 北京師範大學圖書館, 上海圖書館에 소장), 변계서당간본은 13행23자본(吉林省圖書館), 일신서당간본은 11행20자본(국가도서관)이다. 다음으로 명간본인 명초본은 12행23자본(중국 국가도서관), 13행23자본(臺灣 國家圖書館, 故

19) 黃虞稷 撰, 瞿鳳起·潘景鄭 整理, 「千頃堂書目」 卷1 (上海古籍出版社, 2001).

20) 이은호, “朝鮮前期 書經 解釋 研究: 陽村과 退溪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유학과, 2010), 43.

宮博物院), 11행21자본(臺灣 故宮博物院), 건양서방본은 9행17자본(浙江圖書館, 天一閣文物保管所), 내부각본(북경대학도서관 외 다수), 기타 12행21자의 명각본(重慶市圖書館)이 있다.

이 중 국내에 소장된 원간본은 장서각에 『書卷』이라는 제목으로 표기된 6卷6冊(제1책은 복본)의 완질본(文 C1-83)을 들 수 있다. 이 간본은 至正23년(1336)에 宗文精舍에 간행한 간본으로 중국소장본에 보이지 않는 간본이다. 형태사항은 “圖, 四周雙邊, 半郭 20.3 × 11.8 cm, 有界, 半葉 11行21字, 註雙行, 下向黑魚尾; 25.0 × 15.5 cm”로 되어 있다. 表題는 ‘書集傳’ 또는 ‘書卷’이며, 版心題는 ‘書’이다. 墨圍를 사용하여 ‘傳’(음각)과 ‘音釋’(양각)을 구분했다. 간기에 ‘本堂今將書傳附入鄒陽鄒氏音釋 … 收書君子幸鑒 至正癸卯(1363) 孟夏, 宗文精舍謹識’라고 되어 있어 至正23년(1336)에 중문정사에서 蔡沈의 『書集傳』에 鄒季友의 ‘音釋’을 첨부하여 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간본의 특징은 본문과 주석에 권점이 판각되어 있는 점이다. 장서인은 ‘江風山月莊, 稻田福堂圖書, 伊藤氏藏書記,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3.2.2 「大學衍義」 2종

「大學衍義」는 眞德秀(1170-1235)가 經과 史의 일치를 피하여 저술한 것으로 朱熹의 「大學」의 논리를 역사에 접목시켜 『資治通鑑綱目』과 함목시켜 만든 책이다.²¹⁾ 원서명은 「眞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이며 「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라고도 한다. 이 책은 원래 「진서산독서기」 甲·乙·丙·丁集 중에서 <乙集>에 부분으로 작성당시에는 「진서산독서기」에 편입되어 있었다가, 端平元年(1234)에 왕에게 진헌한 책이다. 이처럼 「대학연의」는 처음에는 「진서산독서기」의 일부로서 편찬되었지만, 편찬이 완성됨과 동시에 왕에게 진헌되었기 때문에 「진서산독서기」와 함께 간행될 수 없었다. 따라서 그 이후로도 「대학연의」는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하나의 독립된 텍스트로서 활용되어져 왔다.²²⁾

21) 정재훈, “朝鮮前期 「大學」의 이해와 聖學論,” 『진단학보』 86(1998), 107.

중국에서 간행된 이 책의 간본은 송, 원, 명, 청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간본들이 출현하였다. 이 중 특징적인 간본만을 소개하면 먼저 宋本의 경우 남송 본으로 항자수에 따라 10행20자본과 9행17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卷首題는 모두 <眞西山讀書記乙集上大學衍義>로 되어 있고, 10행20자본의 경우에는 특히 판형에 있어 명간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元本의 경우에는 9행17자본과 11행21자본이 있다. 이 중 9행17자본의 경우에는 송본의 영향을 받아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11행21자본에서는 黑口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원대에는 과거수험교재로서 소형의 巾箱本들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원본의 경우에는 권수제가 <대학연의>로 변한 특징을 지닌다. 明本의 경우에는 관판본, 방각본 및 사간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간본들이 간행되었는데 먼저 弘治15年(1502)의 江西 巾箱本, 正德1년(1506) 宗文堂 書林刊本, 嘉靖8年(1527) 왕실주도의 司禮監刊本, 嘉靖38年(1559)에 吉澄이 福州(福建)에서 간행한 官板本, 萬曆4年(1576) 吳情간본, 崇禎5년(1632)에 長洲의 陳仁錫이 평점을 찍고 교정한 평점본 등이 있다. 명본들 역시 주로 <대학연의>의 권수제를 채기하고 있다. 청대에는 崇禎11년(1638) 武陵에서 간행한 楊鶚간본과 乾隆2년(1737)에 경연 어람용 補刊本, 乾隆4年(1739) 尹會一刻本, 咸豐6年(1858) 武英殿刻本 등이 있다.

이 중 국내에 소장된 원간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총 2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11행21자본의 소자본으로 상기한 간본 중 원간본 『대학연의』의 모습과 유사하다.²³⁾

먼저 想白古貴 181.1181-J562d-v.21/22은 권21, 22로 格物致知之要 二의 辨人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간본의 형태사항은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6.8 × 10.7 cm, 有界, 11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上下向黑魚尾 混在); 23.3 × 13.2 cm”이며, 판심제는 없으며 판심에 卷次가 판각되었으나 ‘卷’字는 생략된 채 ‘二十一’·‘二十二’라는 숫자만 판각되어 있다. 또한 권21과 권22의 권말제 하단에 각기 ‘校正 菴龍’과 ‘校正 翁當’이라고 판각되어 있다. 이 책 권수제 우측하단

22) 김소희, “중국본 『大學衍義』의 판본학적 연구,” 『한국서지학회』 31(2007. 12), 253-254.

23) 김소희, 위의 논문, 2007, 254-270쪽 참조.

에는 <正文齋藏>이라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정문재는 청대 중엽이후에 유리창에 있었던 유명했던 서적이다. 이 장서인을 통해 청대 중엽이후에 유리창에서 구매한 후에 조선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想白古貴 181.1181-J562d-v.43은 권43만 소장되어 있는 간본으로 내용은 齊家之要 四, 教戚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간본의 형태사항은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7 × 10.6 cm, 有界, 11行21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上下向黑魚尾, 上·中下向下內向黑魚尾 混在); 24.9 × 14.5 cm”이며 판심제는 없고, 판심에 권차가 ‘卷四十三’으로 판각되어 있다. 後表紙 裏面에 필사기가 보인다. 이 책에는 <天祿琳琅>과 <乾隆御覽之寶>가 날인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청나라 건륭연간 이후에 조선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²⁴⁾

두 간본은 광곽의 크기, 향자수, 판심을 통해 동일한 간본으로 보인다. 특히 판심에 흑구가 보이고 다양한 어미가 나타나며 大學衍義라는 간략서명이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원간본으로 추정된다.

3.2.3 「廣韻」²⁵⁾ 3종

「광운」의 정식명칭은 「大宋重修廣韻」으로 宋 眞宗 大中祥符元年(1008)에 陳彭年, 邱雍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韻書이다. 이 책은 송대 이전에 ‘切韻’계통의 운서를 집대성하였는데 특히 隋 陸法言의 「切韻」, 唐 孫愐의 「唐韻」 등을 참고하였다. 「광운」은 四聲에 따라 분권하여 총 5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평성자의 경우에만 上平과 下平의 2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 206개의 韻이 사성에 따라 平聲은 57韻(上平 28韻, 下平 29韻), 上聲은 55韻, 去聲은 60韻, 入聲은 34韻으로 분류된다.

「광운」의 판본은 주석의 수록 내용에 따라서 詳註本, 略註本, 前詳後略本으로 구분된다. 상주본은 26,194言에 주석이 191,692자로 이루어져 있다. 권수에 陸法

24) 김소희, 위의 논문, 2007, 259쪽 각주33 참조.

25) 朴貞玉, 「廣韻版本考」(臺北: 學海出版社, 1986). ; 黃翠芬, “「廣韻」詳略版本 先后概述,” 「國立中央圖書館館刊」, 新25卷 第1期(1992).

言의 <切韻序>와 孫愐의 <唐韻序>가 수록되어 있다. 현존본은 淸 張士俊 澤存堂本과 黎庶昌이 간행한 『古逸叢書』 覆宋本, 『四部叢刊』 涵芬樓 覆宋刊巾箱本을 들 수 있다. 이 중 택존당본은 장사준의 교정을 거치면서 송본의 원형을 많이 잃어버린 반면, 고일충서본은 淸 楊守敬이 일본에서 가져온 宋本을 취하여 영인한 것으로 송본의 원형이 남아있다. 택존당본이 현재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 간본을 저본으로 1982년에 中國書店에서 『宋本廣韻』을 영인했고, 周祖謨가 지은 『廣韻校本』(中華書局, 1960)과 余迺永의 『新校互注宋本廣韻』(上海辭書出版社, 2000)에서는 이 택존당본을 가지고 교감한 것이다. 『古逸叢書』 覆宋本은 『小學名著六種』(中華書局, 1998)에 수록되어 있다. 巾箱本은 택존당본과 같이 교정하여 수정한 것이 아닌 宋本의 원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누락된 장이 비교적 많으며 『宋本廣韻·永祿本韻鏡』(江蘇教育出版社, 2005)에 수록되어 있다.

약주본은 25,902言에 주석이 153,421자로 이루어져 있다. 상주본과 달리 권수에 <절운서>와 <당운서>는 누락되어 있다. 현전본은 黎庶昌이 간행한 『古逸叢書』 覆元泰定本, 『小學彙函』 明 內府本, 고염무의 [翻明經廠本], 明德堂에서 간행한 [麻沙小字本]이 있다. 이 중 명덕당본은 元 元貞 乙未年에 明德堂에서 간행한 것으로 현전 最古 元刊本이다. 경창본은 명덕당본을 저본으로 간행한 것이지만 교감이 정밀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끝으로 전상후략본은 四庫薈要本에 수록된 『重修廣韻』으로 제1-4권은 상주본인 택존당본과 동일하고, 제5권은 약주본으로 상기한 약주본보다 더 많은 생략이 이루어진 특징을 보인다.

『광운』의 역대 판본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므로 그 중 朴現圭·朴貞玉의 『廣韻版本考』(臺北 學海出版社, 1986. 7)에 따라 송·원본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송본은 상주본만 현전하며 간행지와 간행주체에 따라 鉅宋本과 大宋本으로 구분된다. 거송본은 閩지역에서 주로 간행한 私刻本이며, 대송본은 浙지역에서 주로 간행한 監刊本을 말한다. 거송본으로는 宋 白口 13행본(日本 眞福寺 寶生院 大須文庫), 南宋 孝宗乾道 5年(1169) 建寧府 黃三八郎書鋪本(日本 內閣文庫, 中國 上海圖書館), 南宋 麻沙鎮 劉仕隆宅에서 黃三八郎書鋪本을 복각한 간본(日本 福井氏 崇蘭館 舊藏本)이 있다. 대송본은 南宋 高宗 紹興年間(1131-1162)

浙刊本(日本 靜嘉堂文庫, 중국 北京圖書館), 소흥간본을 복각한 南宋 寧宗年間(1194-1224) 浙刊本(日本 靜嘉堂文庫所藏本, 宮內廳書陵部, 國會圖書館 등), 南宋 孝宗年間(1162-1189) 浙刊 巾箱本(臺灣 中央圖書館)이 있다.

元本은 먼저 상주본의 경우에는 白口 11행본(日本 내각문고), 14行 明本 正誤本(일본 내각문고)가 있다.

약주본은 略本과 略多本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약본의 경우에는 항자수에 따라 11행본, 12행본, 13행본으로 분류하며 11행본은 建刊(일본 慶應義塾大學 附屬 斯道文庫 소장 殘本), 12행본은 모두 번각본으로 麻沙小字本을 복각한 元貞元年(1295) 明德堂本, 延祐2년(1315) 圓沙書院本(臺灣 中央圖書館 소장 殘本, 日本 天理大學附屬 天理圖書館), 泰定2년(1325) 圓沙書院本(중국 北京大學圖書館), 至正26년(1366) 南山書院本(臺灣 故宮博物院, 日本 龍谷大學, 內閣文庫 殘本, 天理圖書館, 尊經閣文庫, 中國 北京圖書館, 美國 哈佛大學 燕京研究所)이 있다.

13행본은 元 至順元年(1330) 敏德堂本(대만 故宮博物院, 일본 내각문고), 元 余氏 勤德書堂本(대만 故宮博物院), 元 元統3년(1335) 日新書堂本(日本 米澤市立圖書館, 중국 北京圖書館), 建刊(대만 中央圖書館), 元 至正16년(1356) 劉君佐 翠巖精舍本(중국 北京圖書館), 元 宣光2년(1372)에 취암정사본을 복각한 棗巖精舍本(일본 蓬左文庫, 경응의숙대학 부속 사도문고, 足利學校 遺跡圖書館 殘本)이 있다. 略多本으로는 12행본과 13행본으로 구분되는데 12행본은 建刊(일본 慶應義塾大學 附屬 斯道文庫 소장 殘本), 13행본으로는 建安 余氏 雙桂書堂本(중국 북경도서관)이 있다.

이 중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원간본 「광운」은 모두 3종으로 장서각에 2종, 고려대에 1종이 보인다. 장서각본은 文 C1-261, C1-262로 ‘建安詹氏雙溪家塾新刊’이라는 목기를 통해 원대 건안의 침씨가 쌍계가숙에서 간행한 원간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간본 모두 5卷5冊의 완질본이며 각각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文 C1-261의 경우에는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8.3 × 12.0 cm, 13行字數不定 註雙行, 下向黑魚尾; 21.5 × 14.0 cm”의 판형을 지니고 “仁壽山莊, 江風月莊,

李王家圖書之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C1-262는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9.4 × 12 cm, 有界, 13行字數不定 註雙行, 下向黑魚尾; 21.2 × 14.0 cm”의 판형을 보이며 天寶10년(751)에 작성한 孫愐의 ‘唐韻序’가 있고, “江風產月莊, 好古堂圖書記, 仁壽山莊, 福堂, 李王家圖書之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두 간본은 모두 “建安詹氏雙溪家塾新刊 至元壬辰良月書”의 간기가 판각되어 있는데 기존 해제에서는 ‘至元壬辰’을 1352년 壬辰으로 보고 있지만 1352년은 至正연간이 되므로 ‘至元壬辰’은 前至元 壬辰인 지원29년(1292)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통해 살펴볼 때 장서각본은 원대 건안지방에서 간행된 13행본으로 주석이 생략되어 있는 略本이다. 이 간본은 『廣韻版本考』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간본으로서 판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고려대본(만송 貴中 26)은 5卷1冊의 완질본으로 “四周雙邊 半郭 21.5 × 12.8 cm, 有界, 12行不定字 小字雙行, 上下黑口, 下向黑魚尾; 28.0 × 15.8 cm”의 판형을 지니고 있다. 이 간본은 원대에 간행되었던 12행의 略本인 延祐2년(1315) 원사서원간본, 泰定2년(1325) 원사서원간본, 至正26년(1366) 南山書院本과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韻目を 표현한 墨圍의 형태에서 14세기 초에 간행된 원사서원본과 더욱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원사서원본을 저본으로 남산서원과 고려대 만송본의 간본들이 출현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간기가 없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광곽과 판심의 형태, 지질로 보아 원말간본으로 추정된다.

3.2.4 「漢書」

司馬遷의 「史記」와 함께 정사서의 대표로 추앙되는 이 책은 章帝 建初年間(76-83)에 班固(32-92)가 저술한 기전체 사서이다. 「사기」가 五帝로부터 전한 무제 때까지의 역사를 다룬 통사인데 반해 「한서」는 전한시대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는 사실을 기술한 단대사이다. 「한서」의 체재는 12개의 紀, 8개의

表, 10개의 志, 70개의 列傳 총100권(후에 120권으로 분권)으로 이루어져있다. 비록 南宋 鄭樵(1103-1162)에 의해 표절이라는 혹독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기』와 함께 문장학습의 모범서이자 문학작품으로서 많은 영향을 끼친 서적이다. 『한서』가 편찬된 이후로 역대 많은 주석서들이 나왔지만 唐代 顏師古의 주석서가 나온 이후로는 안사고의 주석본이 통용되었다.

『한서』 刊本の 시초는 北宋 淳化本으로 淳化5년(994)에 기존의 抄本들을 정밀하게 교감하여 국자감에서 간행된 것이다. 북송대에는 이 외에도 景德 원년(1004), 景祐 2년(1035)에 국자감에서 간행한 景德本과 景祐本도 있다. 북송 순화, 경덕, 경유연간에 이루어진 『한서』의 간행은 三史, 즉 『사기』, 『후한서』와 함께 간행된 것이다. 남송시기에는 지방관서인 兩淮江東 轉運司와 湖北提舉 茶鹽司와 교육기관인 福唐郡庠, 서원인 白鷺洲書院을 비롯하여 개인적으로 黃善夫(慶元연간)나 蔡琪 一經堂(1208년)에서의 간행한 간본들이 출현하였다. 원대의 간본으로는 현재 大德9年(1305)에 太平路幼學에서 간행한 판본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명대에는 남경국자감(嘉靖本, 萬曆本)과 북경국자감(萬曆本)에서 21사의 하나로 간행되기도 하였고, 崇正書院(1537)에서 간행한 서원본이나 德藩(嘉靖年間)에서 간행한 번부각본 등도 나왔다. 그리고 崇禎15年(1642)에는 毛晉의 汲古閣에서 17사의 하나로 간행되었던 급고각각본을 들 수 있다. 이 중 북송본은 현전하지 않으며 남송본이나 원간본은 현전본이 매우 드물다. 만력연간에 간행된 남경이나 북경의 국자감간본과 모진의 급고각각본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국내에는 이 중 大德8-9年(1304-1305)에 태평로유학 간본을 저본으로 하여 원명대에 걸쳐 수보가 이루어진 원명체수본이 고려대(육당 貴 540)에 소장되어 있다. 소장본은 권40-41(張陳王周傳 제10, 樊鄴滕灌傅靳周傳 제11) 1冊의 零本으로 형태사항은 “四周單邊 半郭 20.6 × 14.4 cm, 有界, 10行19字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9.7 × 18.6 cm”이다. 판심 상판구에는 글자수가 판각되어 있고 하판구에는 “大德八年(1304)刊”, “大德八年補刊”, “大德9年(1305)刊”, “元統二年(1334)刊”의 보간연도와 각수가 판각되어 있다. 이를 통해 대덕8년판은

권4의 제2, 5, 7, 8, 9(補刊), 11, 14장과 권5의 제6장이며, 대덕9년판은 권4의 제24, 26, 27장에 해당하며, 원통2년판은 권4의 제1, 13, 28장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덕8년판의 형태는 ‘上下單邊, 左右雙邊에 10行19字, 上下內向黑魚尾’이며, 하판구에 ‘子龍, 禾甫, 种甫, 益山’ 등의 각수명이 판각되어 있다. 판심제는 ‘前漢張陳傳十’, ‘前漢樊鄴傳十一’이다. 이 중 권4의 제2장에만 항자수가 10행 20-21자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덕9년판목이 형태는 ‘四周單邊, 上下向黑魚尾’의 판형에 ‘仲和’의 각수명이 판각되어 있고, 판심제는 ‘前漢傳十’으로 대덕8년판과는 차이를 보인다. 원통판의 형태는 대덕8년판과 동일하지만 판심제는 ‘前漢傳十’로 차이를 보인다. 하판구에는 ‘壽, 匡(?), 玉’의 각수명이 판각되어 있다. 이 외에는 모두 補刊年度가 판각되어 있지 않아 광곽과 어미, 版口의 차이를 통해 간행연대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광곽은 ‘사주단변, 사주쌍변, 상하단변 좌우쌍변’으로, 어미는 ‘상하하향흑어미, 상하내향흑어미, 상하향중상향하내향흑어미’로, 판구는 ‘세흑구, 대흑구, 백구’로 구분된다. 원말-명초 수보본 중에는 간혹 墨釘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늦게 수보된 판목은 권4의 제23, 25장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다른 판면에 비해 인출면이 현저하게 깨끗하고 사주쌍변에 대흑구의 판형을 띄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책이 국내에 유입된 시기는 20세기 초로 卷末에 “六堂先生鑒存丁丑(1937) 舊十月下澣北溟奉贈並題記”라는 受贈記를 통해 1937년에 최남선(1890-1957)이 중국 금석·서화·장서가인 陶祖光(1882-1956)에게 증여받아 유입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北溟은 도조광의 字이다. 권말에 날인된 “陶氏金石, 翔鸞閣精鑿” 역시 도조광의 장서인이다.

3.2.5 「五代史記」

五代十國의 역사에 대해 歐陽修(1007-1072)가 개인적으로 편찬한 기전체 史書이다. 이 책이 편찬된 이후 薛居正的 「五代史」는 「舊五代史」로, 본서는 「新五

代史』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 책의 간행은 『玉海』권46에 “照寧五年八月十一日詔其家上之。十年五月庚申 詔藏秘閣”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희령10년(1077) 이후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송본은 현전하지 않고 있고 남송 초기에 북송본을 번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修補本이 현전하고 있다.²⁶⁾

대표적인 현존본으로는 南宋初期間本, 남송전중기간본, 宋 慶元刻本, 元代에 宋 慶元5년 建刊 曾三異校本을 번각한 간본, 元 大德 九路儒學刊本, 嘉靖8-10년 남경국자감간본, 萬曆연간 남·북 국자감간본을 들 수 있다. 이 중 원대에 증이삼본을 번각한 간본만 10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12행본으로 되어 있다.

이 중 국내에는 원 대덕연간에 구로유학의 하나인 宗文書院에서 간행한 간본이 규장각(奎 25002)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간본은 74卷10冊의 완질본으로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1.6 × 15.8 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上下花口, 上下下向黑魚尾 ; 27.5 × 18.3 cm” 형태를 보인다. 어미의 경우에는 上下向黑魚尾가 혼재되어 있다. 판심 상판구에는 한장에 들어가는 글자수가, 하판구에는 각수명이 판각되어 있다. 表題와 版心題는 모두 五代史이며, 卷首에 建安 陳師錫(1057-1125)이 지은 五代史記序와 五代史記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卷74末 6행 하단에 ‘宗文書院’이라는 간행처가 판각되어 있다. 중문서원에서는 이 간본 외에도 『經史證類大觀本草』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규장각본은 중문서원에서 간행한 元版과 명초에 수보한 明版이 혼재된 元明遞修本으로 추정된다. 중문서원 간본은 嘉靖8-10년에 南京國子監에서 二十一史를 대대적으로 수보할 당시에 활용되었고, 당시 수보된 판면의 판심에는 ‘嘉靖8-10年’의 補刊年記가 판각되어 있어 新舊版 즉, 元版과 明代修補版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규장각 소장본의 경우 수보된 명판 부분에 補刊年記가 없는 것으로 보아 嘉靖연간 이전인 弘治 또는 正德연간 무렵에 수보된 판으로 보인다. 장정은 개장되어 있으나 表紙를 열면 명대의 표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장서

26) 尾崎康, 『正史宋元版の研究』(汲古書院, 1989)(1992. 12 影印本), 18-19.

인은 “서울大學校圖書”만이 남아되어 있다.

3.2.6 「資治通鑑」 2종

「資治通鑑」 294권은 송나라의 司馬光(1019-1086)이 엮은 편년체 역사서이다. 사마광이 칙령을 받들어 책을 편찬하기 시작한 것은 英宗 治平3년(1066)부터이며, 劉恕, 劉放, 范祖禹의 도움을 받아 元豐7년(1084)에 目錄, 考異와 함께 완성했다. 칙명을 받기 이전에 이미 「通志」 8권을 지어 헌상하였는데 治平4年(1067) 10월에 이르러 神宗이 「자치통감」이라는 서명을 하사하게 된다.²⁷⁾ 내용은 周나라 威烈王 23년에 쫓나라의 3家が 명을 받아 제후가 된 것에서 시작하여 아래로는 五代 말에 이르기까지 모두 16왕조, 1362년간의 역사를 수록하였다.²⁸⁾

이 책의 초간본은 元祐元年(1086) 10월에 杭州에서 판각하기 시작하여 7년에 완성된 것이다. 자치통감의 송원간본은 크게 3종으로 구별할 수 있다. 먼저 元祐年間에 간행된 것으로 正文만 수록되어 있는데 송대에는 이 국가감본의 계통이 주로 통행되었다. 紹興3년(1132)에 兩浙東路提舉茶鹽司에서 간행한 간본은 아마도 이 북송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북간본이 현재 북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民國8년(1919)에 商務印書館에서 영인한 百衲本에 다른 6종의 송간본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白文本으로는 南宋前中期에 간행한 15행25자본, 南宋前期에 간행한 14행24자본, 南宋前中期에 간행한 16행27자본, 남송전중기에 간행한 16행17자본, 남송전중기에 간행한 15행24자본, 남송중기에 간행한 11행22자본(이상은 百衲本에 수록), 원대에 남송중기 건간본(11행21자본)을 복간한 간본이 있다.

다음으로 북송 말에서 남송초에 간행된 것으로 일명 龍爪本을 들 수 있는데 이 간본의 특징은 史炒의 「通鑑釋文」의 내용 일부를 주석에 포함시킨 점이다. 그러나 이 간본 역시 현전하지 않으며 「通鑑釋文」을 주석에 포함시킨 간본으로

27) 劉節 著·신태갑 역, 「中國史學史講義」(신서원, 2000), 341-354 참조.

28) 李宗侗 著·조성을 역, 「중국사학사」(혜안, 2009), 196.

는 남송 鄂州 鶴山書院 간본(木記: 鄂州孟大師府三安撫位刊梓于鶴山書院)과 이를 복각한 元 至元28년(1291) 福州 魏天祐간본이 알려져 있다. 먼저 학산서원 간본은 鄂州 즉 湖北에서 간행된 것이지만 字樣이 蜀刻本の 모습을 띠고 있다. 이 간본은 日本 靜嘉堂文庫,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天理大學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위천우간본은 당시 福建等處 行尙書省 參知政事였던 위천우가 간행한 것으로 北京圖書館에 간본이 소장되어 있다.

끝으로 송말원초에 胡三省의 音註과 釋文弁誤가 첨부된 것으로 원대 이후에는 많은 간본들이 이 음주본으로 유통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최초의 간본으로는 元 至元27年(1290)에 간행된 興文署刊本으로 추정된다.²⁹⁾ 이 간본의 原刊本은 上海圖書館, 復旦大學圖書館에, 명초 修補本은 日本 靜嘉堂文庫에, 明 弘治 2-3년(1489-1490)과 正德9년(1514), 嘉靖1·20·22년(1522, 1541, 1543)의 수보본은 復旦大學圖書館에, 明 嘉靖32년(1553)의 修補本은 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수보본은 原刻인 洪문서관본을 포함하고 있는 원명체수본이다.

이 중 국내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952 사마광조-100)과 경북대학교서관취암문고에 원 지원27년(1290)에 洪문서에서 간행한 간본이 소장되어 있다.

계명대본은 권292-294에 해당하는 零本 1冊으로 “四周雙邊 半郭 21.3 × 14.2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下向黑魚尾 ; 28.5 × 16.8 cm”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판심 상판구에는 한장에 판각되는 글자수를 판각했고 하판구에는 각공명이 새겨져 있다. 卷末에는 元豐7년(1084)에 司馬光이 작성한 進書表, 熈諭詔書에 이어 “紹興三年(1132)十二月二十日 善工印造”의 간행기록과 교감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박철상에 따르면 “南宋 紹興3년(1132) 7월 1일 兩浙東路提舉茶鹽司公使庫에서 紹興府 餘姚縣에 판본을 내려주어 紹興3년(1132) 12월 12일에 완성했다는 기록이 있는 판본이다. 하지만 이 책은 宋代의 판본은 아니고 元代에 다시 판각된 것으로 보인다. 1책의 낙질이지만 송원대의 간행 기록이 남아있는 귀중한 고판본이다.”³⁰⁾라고 하여 소흥3년의 兩浙東路提舉茶鹽司公使庫을 저본

29) 尾崎康, “宋元刊資治通鑑について,” 『斯道文庫論集』 23(1989. 3), 174.

30) 박철상,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中國本 古書의 가치,” 『한국학논집』 제37집(2008), 224-225.

으로 원대에 重刻한 간본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현존본으로 계명대본과 동일한 판형을 지니고 있는 경북대본을 대상으로 지원27년에 간행된 흥문서간본과 대조해보면 전체적인 판형과 판심 상판구에 판각된 글자수 및 하판구에 기록된 각수명을 비롯하여 판이 쪼개진 부분 또한 일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명대와 경북대 소장본은 모두 지원27년에 간행된 흥문서간본임을 알 수 있다.

3.2.7 「太平金鏡策」

「太平金鏡策」은 元 世祖 至元(1271-1294)末에 趙天麟(1310-?)이 올린 上書를 편집한 책이다. 초친원은 元 武宗-大中前後연간의 사람으로 字는 알 수 없으나 東平布衣라 자칭했으며 四六文에 능했다고 한다. 이 책은 田制, 農桑, 賦役, 戶計, 義倉, 冗官, 服章, 祭祀, 軍事 등 방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대의 각종 제도를 연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책의 구성은 建八極, 修八政, 運八樞, 樹八事, 暢八脈, 宣八令, 示八法, 舉八要를 綱으로 두고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64개의 子目으로 편차하였다.

현전본은 元刊本만이 전해지고 있고, 소장처는 中國國家圖書館(권3-6, 4권 낙질본) 北京大學圖書館(3권 낙질본)과 寧省旅順博物館(2권 낙질본) 및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에 낙질로 소장되어 있다. 이중 고궁박물관 소장본은 建陽書坊에 간행한 坊刻本으로 「答策秘訣」 1권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본서의 내용은 明 永樂12年(1414)에 楊士奇 등이 편찬한 「曆代名臣奏議」에서도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원간본으로는 고려대에 1종이 현전하고 있다. 이 책은 상기했듯이 현존본이 매우 희소할 뿐만 아니라 零本으로 남아있는데 반해 고려대본은 8권1책의 완질본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 논문에서는 「서림청화」 권3 <송주부현각서>에서는 손성연 평진관감장서적기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요여현본 자치통감을 元刊本으로 보고 있다.

다. 고려대 소장본(만송 D5 B3)의 형태는 “四周雙邊 半郭 18.8 × 11.7 cm, 有界, 13行25字, 上下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22.7 × 14.5 cm”의 판형을 보인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고 標題面은 ‘皇朝經進 太平金鏡策 鵬海風高萬里遂雲○… ○龍廷日暖九重回天上之光’이라고 판각되어 있다.

이 간본 역시 대만고궁박물관 소장본과 동일하게 「태평금경책」 앞에 「답책비결」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³¹⁾ 版心題는 「답책비결」의 경우 「策訣」로, 「태평금경책」의 경우 「策」으로 되어 있다. 卷數에는 「태평금경책」의 목차, 조천린이 올린 「進表」, 「답책비결」의 본문이 수록되어 있다. 「답책비결」 본문 제3행에는 “建安 劉錦文叔簡 輯”이라는 편저자명이 부출되어 있고, 목록은 별도로 수록하지 않았다. 「답책비결」은 治道, 聖學, 制度, 聖學, 取材, 人才, 文章, 形勢, 災異, 諫議, 經疑, 歷象의 12조목과 각 조목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구분하여 答案을 작성하는 요령을 제시한 것이다. 12조목 끝에는 ‘至正己丑(9, 1349)孟秋 建安日新堂 謹識’라는 識文이 수록되어 있어 建安의 日新堂 서점 주인인 劉錦文이 간행한 서적임을 알 수 있다.³²⁾

이 간본을 국립고궁박물관본과 비교하면 권1 제3행의 계선이 동일하게 쪼개져 있어 두 간본이 동시기에 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간행은 지문이 작성되었던 지정9년(1349) 무렵에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고려대본의 경우 판목이 쪼개진 부분이 자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판각 시기보다 조금 늦게 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2.8 「通志」 3종

이 책은 南宋시대의 학자인 鄭樵(1103-1162)가 紹興8년(1138)에서 紹興 30년

31) 宮紀子, 「モンゴル時代の出版文化」(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1), 424-430 참조. 유금문은 「태평금경책」 이외에 祝堯의 「策學提綱」을 간행할 때에도 「答策秘訣」을 첨부하였다.

32) 「答策秘訣」의 원저자는 曾堅(자는 子伯)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그가 작성한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견은 至正2年 江西鄉試를 제2등으로 합격했고 撫州路 落安의 錄事司를 지냈던 인물이다.

(1160)에 걸쳐 저술한 紀傳體 通史로 三皇五帝로부터 隋, 唐末에 이르는 각종 典章制度가 수록되어 있다. 책의 구성은 『史記』의 체계를 본따 紀, 譜, 略, 世家, 列傳, 載記 즉, <帝紀> 18권, <后妃傳> 2권, <年譜> 4권, <二十略> 52권, <世家> 3권, <宗室傳> 8권, <列傳> 130권, <載記> 8권, <四夷傳> 7권 총 200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지』의 간본은 元刊本과 이를 명대에 수보한 元明遞修本이 현전하고 있다. 元刊本은 至大 2年(1309)에 福州의 三山郡庠 간본, 至治2年(1322) 三山郡庠 修補本이 있다. 이 간본은 이후 明 成化10(1474), 萬曆17년(1589)에 계속 補刊되었다. 至大 간본의 판형은 간혹 관심하관구에 ‘至大二年’, ‘至大二年福建’, ‘至大己酉’의 판각되어 있고, 지치2년본에는 ‘吳繹의 序’와 至治元년에 작성된 ‘吳繹의 疏’, 지치2년의 ‘印造 列銜’이 첨부되어 있다. 수보본의 판형은 성화본의 경우 大黑口이며 관심상관구에 ‘成化十年/吏部重刊’의 補刊연도가, 만력본은 白口이며 관심상관구에 ‘萬曆十七年’의 보간연도가 판각되어 있다.³³⁾

청대에 이르면 『通典』과 『文獻通考』를 합한 三通本이나 『欽定續通典』, 『欽定續通志』, 『欽定續文獻通考』, 『欽定皇朝通典』, 『欽定皇朝通志』, 『欽定皇朝文獻通考』를 합한 9통본, 9통본에 『欽定皇朝續文獻通考』를 합한 10통본으로 주로 유통되었다. 3통본으로는 乾隆12年(1747) 武英殿 校刊本, 咸豐9年(1859)에 武英殿本을 저본으로 한 崇仁謝氏간본이 있고, 9통본으로는 光緒8年(1882) 杭州 浙江書局本, 光緒27年(1901) 上海圖書集成局에서 무영진 본을 교정하여 인출한 鉛印本, 1902년(光緒 28)에 貫吾齋에서 간행한 『九通全書』 石版本이 있고, 10통본으로는 光緒27年(1907) 商務印書館 刊本을 들 수 있다.

『통지략』(또는 『通志二十略』)은 『통지』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것으로 알려진 略만을 뽑아 간행한 것을 말한다.³⁴⁾ 略은 氏族略(6卷), 六書略(5卷), 七音略(2卷), 天文略(2卷), 地理略(1卷), 都邑略(1卷), 禮略(4卷-吉禮, 嘉禮, 賓禮, 軍禮, 凶禮), 諡略(1卷), 器服略(2卷), 樂略(2卷), 職官略(7卷), 選舉略(2卷), 刑法略(1

33) 尾崎康, “日本現在宋元版解題 史部(上),” 『斯道論集』 27(1993), 269-270 참조.

34) 『통지략』에 관한 세부 내용은 鄭樵 撰, 王樹民 點校, 『通志二十略』上 (北京: 中華書局, 1995)를 참조.

卷), 食貨略(2卷), 藝文略(8卷), 校讎略(1卷), 圖譜略(1卷), 金石略(1卷), 災祥略(1卷), 昆蟲草木略(1卷) 총 20편 5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氏族略·六書略·七音略·都邑略·校讎略·圖譜略·金石略·昆蟲草木略은 「通志」의 독창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³⁵⁾

「통지략」의 간본으로는 元刊本(臺灣中央研究院 傅斯年圖書館)과 明 嘉靖29年(1550)에 福建 監察御史인 陳宗夔가 간행한 명간본, 乾隆14년(1749)에 錢塘 汪啓淑(1728-1799)가 교정한 校刊本, 民國25년(1936)에 中華書局 刊本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소장 元刊本으로는 「통지」의 서명으로 된 것이 1종(고려대학교 도서관), 「통지략」의 서명으로 된 것이 2종(규장각)이 보인다. 먼저 고려대본(경화당 貴中 6) 「통지」는 16冊의 零本으로 형태사항은 “上下單邊 半郭 28.9 × 19.4 cm, 有界, 9行20字 小字雙行, 上下黑魚尾 ; 34.7 × 22.5 cm”이다. 表題는 「通志略」으로 되어 있다. 소장본은 권1-4, 20, 29-34, 40-42, 54-56, 69-70, 118, 124上-124下, 148, 149, 188-189, 190, 197-198, 81, 84下, 102上-102下이다.

판심 상판구에는 한 장에 판각된 大小의 글자수가 판각되어 있고 하판구에는 “爐福, 江六, 君美(丁君美), 呂德, 史經, 吳石乙, 鎮道(丁鎮導), 施八, 葉復亨, 許三, 正甫(劉正甫), 德明(黃德明), 子忠, 吳子彪, 葉元起, 黃章” 등 각수명이 판각되어 있다. 이들 각수명은 원대에 간행되었던 原刊本에 보이는 각수들로 원 지대2년(1309)에 福州의 三山郡庠에서 간행한 간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규장각 소장본 2종(古貴 952.01-J954t, 想白古貴 952.01-J462t)을 살펴보면 表題는 모두 고려대본과 동일하게 「통지략」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규장각본은 각기 列傳과 四夷傳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통지략」이 아닌 「통지」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 중 古貴 952.01-J954의 경우 題簽題의 형태와 서체가 아래 그림과 같이 고려대본과 유사한 점에서 원소장자가 동일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본의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古貴 952.01-J954t는 1冊(134張)의 零

35) 서울대학교 규장각 오병한 해제.

本으로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9.3 × 19 cm, 9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 ; 34.7 × 22.5 cm”이다. 卷頭題는 ‘列傳’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列傳 卷16, 17로 전체적으로 권103-104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권16과 권17의 판형을 보면 어미 모양과 판심 상하에 판각된 내용에서 차이가 발견되지만 모두 元刊本으로 보인다. 권17의 판심 상판구에는 한 장에 들어가는 글자수가 판각되어 있고, 권16의 판심 하판구에는 각수명이 판각되어 있다.

다음으로 想白古貴 952.01-J462t는 1冊의 零本으로 형태사항은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9.5 × 19.3 cm, 有界, 9行21字, 上下內向黑魚尾 ; 41.8 × 27.2 cm”로 상기한 규장각본과 동일하다. 소장본은 권199 四夷傳 제6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간본은 元 至大2년(1309)에 福州路의 三山郡庠에서 간행한 것을 元 至治2년(1322)과 明 成化10年(1474)에 보간한 遞修本이다. 이러한 사실은 판심 상판구에 ‘成化十年’이라는 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소실 또는 훼손된 판목을 명대에 수보하면서 원대에 간행된 판면과 구분하기 위해 당시 판각했던 연도를 기록한 것이다.

원대에 판각한 부분과 명대에 수보된 부분의 차이는 框郭의 모양과 書口에 판각된 내용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원판본의 경우에는 框郭이 ‘上下單邊 左右雙變’으로 되어 있고 명판본의 경우에는 ‘四周雙變’으로 되어 있다. 書口의 내용은 元版本의 경우 판심 상판구에 한 장에 수록된 글자수가 판각되어 있고 하판구에는 간혹 각수명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명판본에서는 ‘上下大黑口’가 판각되어 있고 그 안에 補刊記를 陰刻으로 새겨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9 「至正條格」

「지정조격」은 至正 5년(1345) 11월에 완성되어 다음해 夏四月 계축(1346. 4. 26)에 반포된 법전으로,³⁶⁾ 條格과 斷例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원대에 몇 가지의 다른 판본이 통행했을 것이라 짐작되나 명 이후에는 오직 그

36) 김호동, “「지정조격」의 편찬과 元 말의 정치,” 『至正條格 - 校註本』 (휴머니스트, 2007), 369.

조격 부분만이 영락대전에 수록되어 이것은 『四庫全書提要』存目に 들어있다. 그 밖에 『文淵閣書目』과 『千頃堂書目』에도 저록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현재 전하지 않는다. 현존본은 1980년대 초 내몽고 黑城 원대 이씨나이로(亦集乃路) 遺址에서 발견된 잔엽 8장과 2002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孫氏 종가 발견된 잔편이 유일하다. 흑성본은 宣紙와 麻紙를 사용하였고 8행에 하판구에 각수명이 판각된 판각본에 가깝고 경주본은 竹紙를 사용하였고 판식과 자양은 전형적인 원대의 민간 방각본으로 여겨진다.³⁷⁾

경주본의 발굴은 2002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도한 ‘고문서 조사 연구사업’을 통해 이루어졌고, 2003년 경주 손씨 종가(중손 손성훈)의 전적이 동 연구원 장서각에 일괄 기탁되고, 2004~05년에 걸쳐 보존 처리를 거쳐 학계에 공개하게 된 것이다.³⁸⁾ 소장본은 조격의 경우 권23-34의 12권이 남아있는데 사고전서총목 권84 <政書類存目二>에 의하면 지정조격 23권(영락대전본)의 分目 수는 모두 27로, 즉 祭祀, 戶令, 學令, 選舉, 宮衛, 軍防, 儀制, 衣服, 公式, 祿令, 倉庫, 廐牧, 田令, 賦役, 關市, 捕亡, 賞令, 醫藥, 假寧, 獄官, 雜令, 僧道, 營繕, 河防, 服制, 站赤, 權貨이며, 이 중 권23-34는 창고~옥관까지 10目に 해당한다. 단례는 총 30권 중 권1-13까지의 13권이 남아있는데, 권1은 衛禁, 권2-6은 職制, 권7,8은 戶婚, 권9-12는 廐庫, 권13은 擅輿이다.

본 간본의 형태는 ‘조격’이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9.5 × 12.6 cm, 有界, 19行27字, 上下細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23.8 × 15.6 cm’로, ‘단례’가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9.1 × 12.9 cm, 有界, 20行26字, 上下細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24.0 × 15.6 cm’로 1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³⁹⁾

이 책의 유입과 소장 경위에 대해 김문경은 元朝 이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소장본에 날인된 ‘西河任氏’, ‘性夫’의 인장에 주목하여 풍천 임씨 중 西河君

37) 김문경, “元刊本『지정조격』에 대한 기초적 고찰,” 『至正條格 -校註本』(휴머니스트, 2007), 416, 420-421.

38) 안승준, “『지정조격』의 소장 및 보존 경위에 대한 고찰,” 『至正條格 -校註本』(휴머니스트, 2007), 432.

39) 김문경, 위의 책, 418.

任子松과 그의 5대손인 任元濬(1423-1500) 계통의 소장본이 이후 손씨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안승준은 손사성 등 세종 때 승문원 관원들이 북경에 파견되어 서점에서 구득했고 이 당시 구입한 서적이 孫士晟-孫昭-孫仲暉를 거쳐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3.2.10 『玉海』

『옥해』는 남송 王應麟(1223-1296)⁴⁰이 편찬한 類書類의 서적으로 “粹焉如玉, 浩乎似海”라는 뜻에서 제목을 취하였다. 이 책은 博學鴻詞科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시하여 편찬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서와 분류체계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송대의 역사사실을 『實錄』과 『國史』·『日歷』에서 많이 채용했다는 점에서 사료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다. 권말에는 또한 『辭學指南』 4卷과 편집자까지는 『詩考』와 『詩地理考』 등 13종의 서적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모두 200卷 약 120만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21部 250여개의 子目로 분류된다. 세부분류는 卷1-5는 天文部, 권6-13은 律曆部, 권14-25는 地理部, 권26-27은 帝學部, 권28-34는 聖文部, 권35-63은 藝文部, 卷64-67은 詔令部, 권68-77은 禮儀部, 卷78-84는 車服部, 卷85-卷91은 器用部, 卷92-102는 郊祀部, 卷103-110은 音樂部, 권111-113은 學校部, 卷114-118은 選舉部, 권119-135는 官制部, 卷136-151은 兵制部, 卷152-154는 朝貢部, 卷155-175는 宮室部, 권176-186은 食貨部, 卷187-194는 兵捷部, 卷195-200은 祥瑞部로 이루어

40) 자는 伯厚, 호는 深寧·厚齋·浚儀遺民이며, 慶元府 鄞縣(浙江省) 사람이다. 樓昉·王堃·徐幾·湯漢에게 배웠다. 1241년 진사가 되었고, 1256년 博學宏詞科에 합격하였다. 太常寺主簿·禮部尙書 등을 지냈으며, 송나라가 망하자 벼슬하지 않았다. 朱熹·呂祖謙·陸九淵의 학문을 종합하였고, 또한 浙東 事功學派 중 永嘉學派의 영향을 아울러 받았다. 名物의 訓詁와 制度의 考證에 뛰어났으며, 經史百家·천문지리·문자훈고 및 古籍文獻의 정리에 조예가 깊었다. 저술로 『深寧集』·『玉堂類稿』·『詩攷』·『詩地理攷』·『漢藝文志考證』·『通鑑地理攷』·『通鑑地理通釋』·『通鑑答問』·『困學紀聞』·『蒙訓』·『集解踐阼篇』·『補註急就篇』·『補註王會篇』·『小學紺珠』·『玉海』·『詞學指南』·『詞學題苑』·『筆海』·『姓氏急就篇』·『漢制攷』·『六經天文編』·『小學諷詠』·『掖垣類稿』 등이 있다(최석기 외, 위의 책, 680).

져 있다. 매 部의 아래에서 또 다시 類目으로 구분하였는데 사물이나 도서의 이름으로 표제를 삼았고 그 아래에 관련된 자료를 인용했다.

이 책은 송대에 간행되지 않아 유실된 것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元 順帝 元統 元年(1333)에 浙東 師府都事 牟君이 繕寫·校讎하여 간행할 것을 건의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元 至元3년(1337)에 浙東 宣慰使司 都元帥 乞里不花的 주도하에 浙東郡縣學과 書院들의 지원을 받고 郡守 張榮祖가 제독으로 과견되어 教授 王弘, 學政 薛元德이 간행을 감독하게 하면서 2년여 만에 완성되었다. 이때 간행된 간본이 가장 빠른 간본으로 그 시기는 元 后至元6년(1340)이다.⁴¹⁾ 이 간본은 至正9년(1349)에 嘉義大夫 慶元路 總管 阿殷 圖塾堂에서 첫 번째의 수보작업이 이루어졌다.

명대에 들어오면 國子監의 주도로 이들 元版을 대상으로 하여 正德, 嘉靖, 萬曆연간에 수보한 간본들이 출현하였다. 이들 수보본 중 正德元年(1506)의 修補本은 序跋은 없으나 판심상판구에는 모두 판각연대가 있고 하판구에는 각공이 기록된 것이 많다. 正德2년(1507)에는 戴鏞이 南京國子監 監丞이 되어 전체 5,000판 중에서 훼손된 부분을 보충하여 435판을 새로이 판각하였다. 구용이 수보한 판은 전체 10분의 1-2에 해당하며 字體는 송설체와 유사하고 古雅하다고 칭송되기는 하지만 교감에 있어서 오류가 많다. 嘉靖6년(1527), 29년(1550), 31년(1552), 34-36년(1555-1557)에는 南京 國子監에서 또 다시 수보하였다. 이 당시 서판에는 版心에 “嘉靖庚戌年”, “嘉靖乙卯年” 등의 補刊年度나 ‘監生 아무개(某)’라고 판각되어 있다. 가정본의 대부분은 元版의 원형이 보이기는 하지만 보수된 글자가 元本과 다소 차이가 나며 교정도 정밀하지 못해서 후세의 이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불완전한 교감으로 인해 만력11-13년(1583-1585), 16-17년(1588-1589)에 이르면 남경 국자감에서 두 번째의 대대적인 보수사업이 진행되었다. 당시의 간행진말에 대해서는 만력17년(1589)에 趙用縣이 補刊하면서 작성한 序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 간본은 元刻本의 원형을 잃어버린 것이 태반이

41) 「옥해」 초간본의 간행연도에 관한 문제는 韓震軍, “『玉海』慶元路刊本刻成時間誤解訂正,” 『辭書研究』(2009. 5), 67-68 참조. 기존에는 至元6년(1269)에 初刊된 것으로 본 것을 이 논문에서 后至元6년인 1340년으로 비정했다.

기는 하지만 교감이 비교적 정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대에 중시를 받았다.⁴²⁾ 청간본으로는 康熙26년(1687) 學使 李振裕가 문풍을 진작시키려는 목적에서 2년에 걸쳐 간행한 修補本, 乾隆3年(1738)에는 知江寧府事 廣川 張華平의 補刊本, 嘉慶11年(1806) 合河康氏刊本, 淸 光緒9年(1883) 浙江書局重刊本, 淸 光緒10年(1884) 重刊本이 있다.

이 중 국내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元明遞修本이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본(想白古貴 039.51-W1842o-v.79/81)은 권79-81의 1冊만 남은 零本으로 “四周單變 半郭 22.4 × 12.8 cm,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 26.2 × 15.5 cm”의 형태를 지닌다. 판심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판형의 차이가 보이는데 먼저 上象鼻에는 ‘대소자수가 기록된 경우’와 ‘正德元年補刻’ 또는 ‘正德二年補刻’의 보간연도가 판각된 경우로 구분된다. 有刊記面은 명대에 元版이 훼손되자 正德원년-2年(1506-1507)에 남경국자감에서 보관한 것이다. 무간기면의 元版 중에는 판이 단절된 현상이 명확하게 보이는 점에서 판각한 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인출한 것을 알 수 있다. 下象鼻에는 元版本의 경우 간혹 각수명 1자가 판각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 본문에 墨等を 사용하여 글자를 삭제한 흔적이 보인다.

裝幀은 조선에 유입되어 5침안으로 새롭게 개장되었으나 원래는 원대에서 명초까지 통용되었던 포배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2.11 『新編古今事文類聚』

이 책은 祝穆이 중국 상고시대부터 송대까지의 모든 事文을 모아 淳祐6년(1246)에 편찬한 類書이다. 송원명대에 이르러 여러 차례 증보 편찬되었는데 처음에는 宋代의 축목이 전집 60권, 후집 50권, 속집 28권을, 별집 32권, 元代 富大用이 여기에 新集 36권, 外集 15권을, 祝淵이 遺集 15권을 추가하였고, 이를明代 唐富春이 校正 편집하였다. 祝穆의 字는 和甫이며 初名은 丙으로 선조대에는 新安(지금의 安徽歙縣)에 거주하였는데 축목의 부친인 祝康國 때에 崇安(지

42) 楊萬兵, “『玉海』版本流傳考述,” 『大學圖書情報學刊』, 第26卷 第2期(2008. 4), 91 참조.

금의 福建)으로 이거하였다. 그는 아우 祝癸와 함께 주자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이 외의 저서로는 『方輿勝覽』 70권도 있다.

『四庫全書』에는 元代 麻沙版이 수록되어 있는데 초기 간본으로는 元 泰定3년(1326) 廬陵 武溪書院 13행본과 명간본인 建刊 14行本, 書林 明實堂간본, 嘉靖 40年(1581) 內府 10행본, 嘉靖40년 書林 楊歸仁 14행본, 萬曆32년(1604) 金陵 唐富春 德壽堂刊本, 萬曆35년(1607) 書林 劉雙松 安正堂 14행본, 建陽知縣 鄒可張 校刊本 등이 있다.

국내에 알려진 元本으로는 경주 손씨 종가(중손 손성훈)와 성암고서박물관에 각기 落帙로 소장되어 있다. 먼저 경주본은 27책의 零本으로 판식이 “四周雙邊 半郭 19.2 × 12.5 cm, 14行28字, 中黑口, 上下下向黑魚尾”로 이루어져 있다. 성암본(3-1071)은 前集 卷1-60, 後集 卷1-4, 11-44, 續集 卷28, 別集 卷19, 外集 卷15, 新集 卷36(前60卷, 後38卷, 續1卷, 別1卷, 外1卷, 新1卷) 총99卷44冊이 소장되어 있고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7.5 × 11.6 cm, 有界, 13行24字, 上下小黑口, 內下向黑魚尾; 21.6 × 14.1 cm”의 판형을 보인다. 성암본은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서지사항을 보면 “泰定丙寅(1326)廬陵武溪書院新刊”의 간기가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 태정3년(1326)에 여릉의 무계서원에서 간행한 원간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주손씨본은 원간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4행본으로 명대에 간행된 간본일 것으로 보인다.

3.2.12 『精選增入文筌諸儒輿論策學統宗』

이 책은 元 陳繹曾이 延祐연간에 과거가 다시 시행되자 과거 程試를 위해 편찬한 책이다. 진역증의 字는 伯敷이며 至順연간에 國子監 助教가 되었다. 이 책은 전집5권, 후집3권으로 분류하여 行文의 法을 논하고 있으며 전후집 앞에 별도로 古文小譜 1권과 詩小譜 2권을 첨부하였다. 이 중 시소보 2권은 권수에 있는 진역증의 自序에 따르면 亡友 石桓이 지은 것이라 한다.⁴³⁾ 편찬시기는 臺灣

43) 國家圖書館特藏組 編, 『國家圖書館善本書志初稿-集部(四)』 (臺北市: 國家圖書館, 1997),

國家圖書館本(14585) 서지사항에 至順3年(1332)에 진역증이 작성한 서문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지순3년 이후에 편찬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존본과 『四庫全書總目』 存目を 통해 이 책은 前集5권, 후집8권, 속집7권, 별집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前集 5권은 1981년 臺灣商務印書館에서 元代 抄本을 영인했다.⁴⁴⁾ 이 영인본을 살펴보면 목록제, 권수제, 권말제에 사용된 제목이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먼저 목록제의 경우에는 “新刊精選諸儒奧論策學統宗”으로, 권말제는 권1-3, 권5의 경우에 “新刊諸儒奧論”으로, 권4의 경우에는 “新增諸儒奧論統宗”으로 되어 있다. 권수제는 권1-2가 “精選增入文筌諸儒奧論策學統宗”으로 권3-5는 “精選增入諸儒奧論統宗”으로 되어 있다. 또한 목록에는 “古雲後學心易 譚 巽中 叔剛 校正, 古雲後學存理 譚 金孫 叔金 選次, 古雲後學桂山 譚 正孫 叔端 訂定”의 저작역할이 가 표기되어 있어 陳繹曾이 편찬한 이후에 譚巽中이 校正하고 譚金孫이 選次한 후, 譚正孫의 訂定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판본으로는 원간본 1종과 명간본 1종이 남아있다. 元刊本으로는 대만 국가도서관에 ‘前集五卷, 後集三卷, 古文小譜一卷, 詩小譜二卷’이 유일하게 남아있으며 판본의 형태는 “四周雙邊 半郭 18.1 × 12.4 cm, 11行21字”로 되어 있다. 명간본은 만력45년(1617)에 『諸儒奧論』이라는 서명으로 간행된 것으로 중국 국가도서관과 長春市圖書館, 대만 국가도서관본에 매우 드물게 보일 뿐이다.

현존본 자체가 희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원간본은 대만 국가도서관에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이 책의 元刊本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판본이나 내용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소장본은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본(CL 181 정선증 정)으로 前集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5권1책으로 “四周雙邊 半郭 17.7 × 12.1 cm, 有界, 11行21字,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 24.1 × 13.7 cm”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表題는 ‘策學統宗’이다. 내용은 권1에 ‘堯舜, 三王, 大禹’, 권2에 ‘成湯, 文王, 武王’, 권3에 ‘伊尹, 周公, 孔子’, 권4에 ‘曾子, 顏子’,

194-195.

44) (清) 阮元 輯, 『諸儒奧論策學統宗前集』 (江蘇古籍出版社, 1988) 참조.

권5에 ‘子思, 孟子, 老子’에 대한 제유들의 의론을 수록하고 있다.

두 간본을 비교해보면 광곽과 향자수, 반곽의 크기와 같은 판형을 비롯하여 동일한 서체로 이루어져 있어 元대의 체재와도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숙명여대본 역시 元刊本이라 할 수 있다.

3.2.13 元版大藏經

원판 대장경으로 간행된 것은 磻砂藏, 普寧藏 등이 국내에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우선 적사장은 延聖寺藏이라고도 칭하며 간행시기는 南宋代인 嘉定 9년(1216)에 平江府(蘇州 吳縣) 陳湖 磻砂 延聖院에서 私刻을 시작하여 元代 至治 2年(1322)에 이른다. 이 대장경은 송의 思溪藏의 판식을 답습하여 宋刻 부분은 사계관에 의존하고 있고, 원대의 추조 부분은 보령사판을 모방하였다고 하며, 형태적으로도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절첩본 형태에 한 면은 6행 17자로 되어 있다.

국내 소장본은 ‘사주단변, 1행17자’의 판형에 각수명은 ‘玉泉’이 판각되어 있는데, 『影印宋磻砂藏經』⁴⁵⁾에 수록된 송판 적사장과 동일한 각수명으로 되어 있으나 상하변판에서 글자까지의 너비와 전체적인 서체에 있어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다. 더우기 권말에 ‘資德大夫 河南江北等處 行中書省 左丞 朱文清 同男顯祖等 施財命工刊造 / 大藏經板一千卷 捨入江路磻砂延聖寺永遠流通功德 專爲祝延 ■ 壽萬安 辛丑大德五年(1301)九月 日 提調刊板僧 法雷 謹題’가 판각되어 있던 대덕5년(1301)에 다시 판각된 원판 적사장으로 보인다.

규장각에 소장된 『大方等大集經』(古貴 294.3358-B872d-v.20)은 30권본의 적사장으로 추정되며 그 중 권20 寶幢分の 제3, 4번째에 있는 품만이 남아있다. 寶幢分은 권19-21에 총 13개의 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세분하면 권19에는 初魔苦品과 往古品이, 권20은 魔調伏品, 三昧神足品이 권21은 相品, 陀羅尼品, 護品, 授記品, 悲品, 護法品, 四天王護法品, 曠野鬼品, 還本品이다. 즉 규장각본

45) 影印宋版藏經會, 『影印宋磻砂藏經』 제106冊(朝函) (上海: 影印宋版藏經會, 1935).

은 권20의 ‘魔調伏品’과 ‘三昧神足品’만이 총 43折 88面に 수록되어 있다.

이 간본의 형태는 ‘上下單邊, 1面 6행17-18자’이며 전체 책 크기는 ‘32.8 × 14.1 cm’이다. 장정은 折帖裝으로 되어 있다. 권두에 經名과 卷次인 ‘大方等大集經 卷第二十’을 적고 바로 아래에 千字文 字號인 ‘地’를 판각한 후 한 칸을 띠고서 함차인 ‘新羅國 四’를 새겨넣었다. 제2행에는 譯者와 관련된 사항을 주기하였고 제3행에 品名과 品次인 ‘寶幢分中魔調伏品 第三’이 판각되어 있다. 제4행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 절첩부분이 훼손되어 제5행의 제7번째자인 ‘言’과 제6행의 제6-9(作大幻術), 14-17번째 자(趣菩提樹)가 마멸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문의 절첩부분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배접하였다. 목판을 구분하기 위해서 판과 판 사이에 본문보다 작은 글자로 ‘國四 二 豕’와 같이 ‘函次 / 板次 / 刻手名’을 판각했다. 이 간본에는 世자가 ‘卅’로 쓰여고, 國과 国이 혼용되는 등 俗子 현상이 보이는데 이는 元刻本에서 주로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影印宋磧砂藏經』과 비교할 때 서체와 판차의 기록부분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점에서 원대에 보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적사장본으로 남아있는 『續高僧傳』은 唐 貞觀19년(645) 무렵에 南山 律宗祖인 道宣(596-667)이 지은 고승들의 列傳을 수록한 책이다. 민영규 구장본으로 현재는 연세대에 소장되어 있다. 소장본은 ‘권11 義解篇7, 正紀12, 附見5’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左四’ 즉 左函의 4번째에 속해있다. 판식은 ‘上下單邊, 6行17字’이며 각수명인 ‘右’가 판각되어 있다. 『影印宋磧砂藏經』과 비교해 볼 때 字體와 각수명의 차이가 보인다. 이는 원대에 보각된 판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도 元代 至元 14年(1277)에 杭州 余杭縣 普寧寺에서 開版하여 至元 27年(1290)에 완성한 보녕장도 있다. 보녕장은 소실된 思溪藏의 重刊을 위한 성격으로 판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식을 대체로 思溪藏을 따랐으나 福州의 崇寧藏, 毗盧藏 등과 교감하여 완성하였다. 판식은 적사장과 같이 ‘사주 단변, 6行17字’이다.

국내 현존본은 동국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판형은 6행 16자1卷1帖(18張) (零本)으로 ‘上下單變 全郭 25.0 × 45.0 cm, 無界, 1張 24行17字, 無魚尾 ; 30.2

× 11.4 cm'의 판형을 지니며 권말에 '至元十六年(1279)二月日 南山普寧寺住山釋道安題'의 간행기록이 보인다. 이를 통해 지원18년(1281)에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적사판은 명초에 이르러서도 경판이 남아있어 계속 인출이 되었던 것과 달리 보녕장은 원통3년(1335) 이후에 화재로 인해 경판과 사원이 모두 소실되어 현존하는 것이 대부분 원간본으로 알려져 있다.

원판대장경은 최근에도 개인소장본으로 알려진 것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4. 결 언

이상의 조사연구를 통해 국내에 소장된 송·원본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개별 서적에 대해서는 해당 서적에 대한 개괄, 역대 간행, 국내 소장본의 판본감별을 진행하였다.

1종의 서적을 정확하게 감별하기 위해서는 형태적인 사항을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문헌기록과 현존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역대 간본들의 간행 추이와 간본의 특징을 살펴보고 간본 상호간의 비교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에 소장된 송·원본에 대한 판종 및 간행시기에 대한 고증을 통하여 학술적 이용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진행되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국내에 현존하는 송·원본의 현황을 파악하고 감식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장되어 있는 송·원본의 발굴을 비롯하여 잘못 알려진 판본에 대한 오류 수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전통시대 동아시아 서적교류에 관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서지학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원전]

- 四庫全書研究所. 『欽定四庫全書總目』. 第1冊. 中華書局, 1997.
- 葉德輝. 『書林清話: 插圖本』. 上海: 上海古籍, 2008.
- 影印宋版藏經會. 『影印宋碇砂藏經』. 제106冊(朝函). 上海: 影印宋版藏經會, 1935.
- 阮元 輯(清). 『諸儒奧論策學統宗前集』. 江蘇古籍出版社, 1988.
- 鄭樵 撰, 王樹民 點校. 『通志二十略』. 上. 北京: 中華書局, 1995.
- 陳元靚 編(宋), 胡道靜 解題. 『事林廣記』. 中華書局影印本. 1963.
- 黃虞稷 撰, 瞿鳳起·潘景鄭 整理. 『千頃堂書目』 卷1. 上海古籍出版社, 2001.

[단행본 및 논문]

- 瞿冕良. 『中國古籍版刻辭典』. 濟南: 齊魯書社, 1999.
- 屈萬里, 呂彼得. 『圖書板本學要略』(第5版). 臺灣: 華岡出版有限公司, 1978. 4.
- 宮紀子. 『モンゴル時代の出版文化』.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 柳小春. 『中國古籍の板刻書法』. 大阪: 東方出版, 1998.
- 김 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 중국고적의 문헌가치 연구-집부고적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56집(2007).
-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 김소희. “중국본 『大學衍義』의 판본학적 연구.” 『한국서지학회』 31(2007).
- 김신주, 강찬수. “존경각소장 중국고서해제(2).” 『중국어문논역총간』 24(2009).
- 김학주. “조선 간 『朱文公校昌黎先生集』의 略考.”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초판2쇄).
-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內田啓一. “宋元版見返し圖の基礎的研究(<美術に關する調査研究の助成>研究報告).” 『鹿島美術財團年報』 17(1999).
- 段筱春. “日本宮內省藏宋本『寒山詩集』非宋刻本考.” 『中國詩歌研究』 (2003).

- 당윤희, 오수형. “朝鮮時代に 간행된 韓愈 詩文集 판본 연구.” 『중어중문학』 47(2010).
- 島田翰. 『(書目叢編)古文舊書考』. 臺北: 廣文書局, 中華70(1981).
- 島田翰. 『漢籍善本考』.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 仝建平. “『翰墨全書』編纂及其版本考略.” 『圖書情報工作』 54卷 第21期(2010).
- 杜澤遜. 『文獻學概要』. 北京: 中華書局, 2001.
- 羅樹寶. 『中國古代印刷史』. 北京: 印刷工業出版社. 1993.
- 羅樹寶. 지음, 조현주 옮김. 『중국 책의 역사』. 다른생각, 2008.
- 林 夕. “宋刻本的賞鑑與收藏-古書版本知識.” 『藏書家』 第11輯(2006. 11).
- 毛春翔. 『(插圖增訂本)古書版本常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7(2003. 4 重印).
- 毛春翔. 『古書版本常談』.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85.
- 尾崎康. “宋元刊資治通鑑について.” 『斯道文庫論集』 23(1989. 3).
- 尾崎康. 『正史宋元版の研究』. 汲古書院, 1989(1992. 12 影印本).
- 米山寅太郎. 『圖說中國印刷史』. 汲古書院, 2005.
- 朴貞玉. 『廣韻版本考』. 臺北: 學海出版社, 1986.
- 박철상.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中國本 古書의 가치.” 『한국학논집』 제37집(2008).
- 潘國允, 趙坤娟. 『蒙元版刻綜錄』. 內蒙古: 內蒙古大學出版社, 1996.
- 封思毅. “宋代圖書政策.” 『國立中央圖書館館刊』 22(1989).
- 謝鶯興. “古籍版本考辨-以牌記著錄例.” 『東海中文學報』 第14期(2002. 7).
- 小林優子. “靜嘉堂文庫美術館秋季展 靜嘉堂文庫創設百十周年・美術館開館十周年記念 曜變天目と宋元版-靜嘉堂・宋元時代の美術と書籍.” 『茶道雜誌』 66(2002).
- 심경호. 『조선시대 漢文學과 詩經論』. 일지사, 1999.
- 심우준. 『(中國古書)版本鑑定研究』. 서울: 中央大學校 出版部, 1991.
- 심우준. 『高麗.朝鮮朝初期 韓國本漢籍: 北京大學古文獻研究所講演抄』. 북경:

北京大學古文獻研究所, 1999

安平秋, 盧偉, 稻畑 耕一郎. “アメリカの圖書館に所藏される宋元版漢籍の概況 (國際シンポジウム:中國古籍流通學の確立(2)).” 『中國古籍文化研究』 5(2007).

野上俊靜. 『遼金の佛教』. 京都: 平樂寺書店, 1953.

楊萬兵. “『玉海』版本流傳考述.” 『大學圖書情報學刊』 第26卷 第2期(2008. 4).

嚴佐之. 『古籍版本學概論』(國學基礎叢書)(第2版).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8. 10.

옥영정. “元刊本の 조선간행과 유통.” 『동아세아출판문화연구 국제학술회의 강연·논문집』 (2008).

王新華. 『避諱研究』. 濟南: 齊魯書社, 2007. 1.

王肇文. 『古籍宋元刊工姓名索引』.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12.

姚瀛艇. 『宋代文化史』(宋代研究叢書). 河南大學出版社, 1992. 2.

熊 篤, 許廷桂. 『中國古典文獻學』. 重慶: 重慶出版社, 2000.

위은유, 왕금우. 『古籍版本鑑定總談』. 北京: 印刷工業出版社, 1984.

魏隱儒. 『中國古籍印刷史』. 北京: 印刷工業出版社, 1988.

윤병태. 『韓國書誌年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이수건. “嶺南大 中央圖書館 소장 中國古書의 현황과 그 성격.” 『민족문화논총』 16(1996).

이정섭.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中國古書의 整理現況.” 『민족문화논총』 16(1996).

李宗侗 著, 조성을 역. 『중국사학사』. 해안, 2009.

李靑志. 『古書版本鑑定研究』. 台北: 文史哲, 1986.

李致忠. 『古代版印通論』. 北京: 紫金城出版社, 2000.

李致忠. 『古書版本鑑定』. 北京: 文物出版社, 1998.

李致忠. 『宋版書敍錄』.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1994.

李致忠. 『中國典籍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4.

張麗娟, 程有慶. 『宋本』(中國版本文化叢書).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12

(2003. 8 重印).

張伯偉. 「東亞漢籍研究論集」. 臺灣: 臺灣大學出版中心, 2007.

張秀民. 「中國印刷史」. 北京: 浙江古籍出版社, 1989.

長澤規矩也. 「書誌學論考」(張澤規矩也著作集 第1卷). 東京: 汲古書院, 1982. 8.

長澤規矩也. 「宋元版の研究」(張澤規矩也著作集 第3卷). 東京: 汲古書院, 1983. 7.

長澤規矩也. 「長澤規矩也著作集 3」. 東京: 汲古書院, 1983.

錢存訓. 「中國紙和印刷文化史」.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4.

錢存訓. 「中國出版文化史-書物世界と知の風景」.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2.

井上宗雄 外. 「日本古典籍書誌學辭典」. 東京: 岩波書店, 1999.

井上進. 「書林の眺望 -傳統中國の書物世界-」. 平凡社, 2006.

정재훈. “朝鮮前期 「大學」의 이해와 聖學論.” 『진단학보』 86(1998).

曹 之. 「中國古籍版本學」(第2版).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07. 8.

陳 堅·馬文大 編. 「宋元版刻圖釋」(3冊). 北京: 學苑出版社, 2000.

진광천. 「古書版本概要」. 潯陽: 遼寧教育出版社, 1991.

陳先行. “宋元刻本的鑒定與變位.” 『古籍印本鑒定概說』. 陳正宏·梁穎 編. 上海辭書出版社, 2005.

陳正宏, 梁穎 編. 「古籍印本鑒定概說」.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5.

陳正宏, 梁穎. 「古籍印本鑒定概說」.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5.

陳紅彥. 「元本」(中國版本文化叢書).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12(2003. 8 重印).

千惠鳳. 「高麗時代研究 II」.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7.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椎名宏雄. “高麗版禪籍と宋元版.” 『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 15(1984).

椎名宏雄. “宋元版禪籍と五山版.” 『斯道文庫論集』 38(2003).

椎名宏雄. 「宋元版禪籍の研究」. 東京: 大東出版社, 1993.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至正條格』(影印本·校註本). 서울: 휴머니스트, 2007.
- 한비목 편, 심우준 역. 『中國의 典籍』.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1.
- 韓震軍. “『玉海』慶元路刊本刻成時間誤解訂正.” 『辭書研究』(2009. 5).
- 黃丕烈. 『宋版書考錄』.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 黃翠芬. “『廣韻』詳略版本 先后概述.” 『國立中央圖書館館刊』新25卷 第1期(1992).
- 黃華珍. “宮內廳書陵部所藏宋元版の一考察.” 『崎阜聖德學園大學紀要』44(2005).
- 黃華珍. “日本に於ける宋元版の一考察.” 『崎阜聖德學園大學紀要』40(2001).

